

리아호나

계시의
통로를
열다, 24쪽

교사 여러분, 하나의 질문이
전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36쪽

세미나리는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54쪽

경전 카드 자르기, 65쪽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엘마서 30:44

은하계 나선형 팔 쪽에
자리잡은 거대한 신생 성단,
NGC 3603



목차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인식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복지

특집 기사

16 순종: 신앙의 특징
에프 마이클 왓슨 장로
여러분은 복음을 듣기 위해 6일 동안 걸어서 가시겠습니까?

20 복음에서 안식처를 찾다
매튜 디 플리트
케냐 나이로비의 회원들이 복음에서 피난처를 찾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24 주님이 정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우리가 복음에 전념한다면, 현명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0 지도자가 계시에 이르는 길
리처드 엠 롬니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영감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원리.

34 가족이 힘을 얻는 경전 공부
로리 풀러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아이디어

36 훌륭한 질문, 훌륭한 토론
잭 라이언
적절한 질문은 반원들의 이해와 간증을 축복해 줄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회 본부 기사

8 4월 연차 대회 노트

1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건전한 언어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시기가 중요합니다
조슈아 제이 퍼키

14 교회 소식

40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어미 오리와 나를 위한 자비
로지 카프만

표지
앞 사진: 프랜스 레먼스; 뒤 삽화: 마이클
킵스; 표지 안쪽 사진: NASA, ESA, Hubble
Heritage/DOD



44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현대 선지자가 주신 이 권고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인도가 될 수 있다.

44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탐방로를 따라가 보세요.



62

48 여러분을 인도할 네 가지 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몬슨 회장과 함께 듣고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51 포스터: 도와주십시오

52 질의응답
“거룩하지 않은 수많은 것으로
둘러싸인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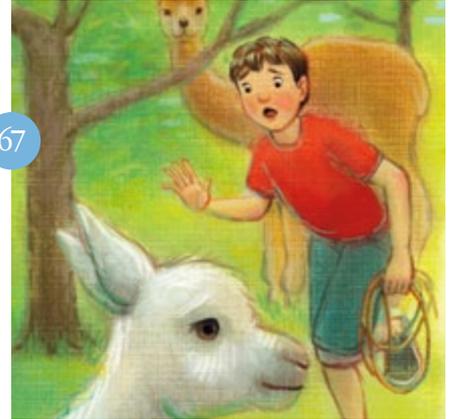
54 세미나리를 통해 얻은 간증
칼라 브리건트
나는 세미나리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간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

56 왜 성전 결혼입니까?
조수아 제이 퍼키
결혼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해
그토록 애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9 험담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브렛 쉬첼틀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들을 놀리는
것은 무척이나 쉬울 수 있었다.

60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말한다”
래리 엠 깁슨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다.

62 일, 봉사, 영적인 자립
페르 지 맘 장로
스웨덴에서 벽돌공으로 일하면서
근면과 간증에 관해 배웠다.



67

64 특별한 증인: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65 경전 카드
이 경전 구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되새겨
보세요.

67 알파카가 도망갔어요!
롭니 피
도망한 알파카들을 다시 잡아오려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했다.

68 유적지 탐방: 나무 탐험
제니퍼 메디

70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72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완에 사는
월이에요
월과 월의 형인 알렌을 만나보고
대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세요.

74 우리들 이야기

75 우리의 대답
타티아나 아게로
나는 아버지께서 간증을 얻도록
계속 기도했다. 아버지께서 진리를
깨닫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79 빛나는 아이디어

81 선지자 초상화: 히버 제이 그랜트

2013년 8월호, 제50권, 제8호
리아호나 10788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재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예프 우후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른, 데이비드 에이
레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트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크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보벨,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이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칼리사 켈렌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렛, 데이비드 스티븐,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클리튼, 민지 라예 프리드만, 로리 폴러, 게리 에이치 가르, 제니퍼 그레이스 존슨,
히카리 로프터스,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로렌 뱅거터 월드,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제넷 앤드류, 케이 피 앤드러스, 시 킴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케리 린 시
해린, 콜린 핑클러, 애릭 피 존슨, 스즈 엠 무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거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술프 브릿지,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허워드, 드니스 커버, जि니 제이 낄슨, 티 필처, 가일 타터 러퍼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1호, 제50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순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야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달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ugust 2013 Vol. 37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 제안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PHOTO ILLUSTRATION BY CODY BELL © IRI

“험담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59쪽; 이
기사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쪽) 언어
편을 읽는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전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토론에서 다음 질문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보가 사실인가? 이 정보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가? 내가 들은 말을 옮기는 것은
친절한 일인가? 활동하려면 가족 모두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 주고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한다. 그런 후 종이를 서로
전달해서 가족들이 각자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써 보게 한다.

“알파카가 도망갔어요!”, 67쪽;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70쪽;
“우리의 대답”, 75쪽;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토론한다. 성신의
인도에 따라 기도와 관련한 경험을 나눈다.
롬처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타티아나처럼 진리를 알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읽은 후 니파이후서 32장
8~9절, 교리와 성약 10편 5절과 같이 기도와
관련한 경전 구절을 나눌 수 있다. 가족에게
개인 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보라고 권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찬송가,
80장)과 같이 기도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고
마친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 | | |
|-------------------------------|---------------------------|---------------------|
| 가르침, 36 | 물문경, 54, 75 | 언어, 59, 60 |
| 가정 복음 교육, 44 | 복지, 7 | 역경, 14 |
| 가족, 34, 48, 52, 56 | 사랑, 48 | 유혹, 43, 52 |
| 간증, 54, 75 | 선교 사업, 12, 20, 44, 70, 75 | 일, 48, 51, 62 |
| 감사, 4, 6 | 선택의지, 44, 52 | 일지, 4, 6 |
| 결혼, 12, 56 | 성신, 4, 24, 30, 48, 75 | 예수 그리스도, 48, 54, 76 |
| 경전 공부, 34, 36, 48, 52, 54, 65 | 성전 사업, 12, 56 | 평화, 20 |
| 교회 부름, 30 | 세미나리, 52, 54 | 표준, 20, 52, 59, 60 |
| 교회 역사, 68 | 시기, 12, 24 | 히버 제이 그랜트, 81 |
| 기도, 41, 52, 70, 75 | 시기함, 64 | |
| 계시, 24, 30, 44 | 신앙, 44, 76 |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인식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하 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어떤 축복을 받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선물로서 그분께 감사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종종 되풀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 “영으로…… 감사드려야”(교리와 성약 46:32)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의 일부분이라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구주께서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오는 기억의 은사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성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겠다고 선택하면 성신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기억나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한 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교리와 성약 59:7)라는 계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기도가 그렇게 할 시간을 마련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후기 성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죄 가운데 하나는 배은망덕의 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더 많은 축복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대단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¹

여러분은 오늘 성신의 은사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세면서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와 더불어 신앙을 행사한다면 다른 축복들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각 축복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입니다. 기억이 떠오르면서 감사함도 뒤따를 것입니다.

일지를 적으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성신은 그 점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도와 왔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서의 내용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으니, 아담의 언어로 기록되었더라. 이는 영감의 영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음이니라”(모세서 6:5)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영감에 찬 기록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기억의 책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주님을 더 잘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이 기사에서 아이어링 회장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하심을 기억해 보라고 했다. 가정 복음 교육 대상자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정 복음 교육 대상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오직 감사함만 표현하게 한다.

아이어링 회장이 언급한 경전 구절 외에도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감사함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시편 100편; 모사이야서 2:19~22; 엘마서 26:8; 34:38; 교리와 성약 59:21; 78:19; 136:28

기억합니다. 일지 작성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는 방법이며 후손을 위해 이러한 축복의 재산을 남겨 주는 것입니다.”²

기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현재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지?”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 질문을 신앙을 갖고 한다면 축복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일상 생활에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가 그분들께 돌아갈 길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신 일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주

1. Ezra Taft Benson, *God, Family, Country: Our Three Great Loyalties*(1974), 199.
2. 스펜서 더블유 김볼, “천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20쪽.

목록 작성



아 이어링 회장은 김볼(1895~1985)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인용했다. “일지는 우리의 축복을 헤아려 보고 우리의 번영을 위해 주어진 축복의 목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20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일지를 기록하는 것에 관한 간증을 나누었다. 삶의 몇 가지 경험을 나누며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줄곧 일지를 써 온 덕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억하지 못했을 몇 가지 구체적인 일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여러분의 삶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받은 크고 작은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6쪽)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도록 열심히 애쓰고 여러분의 일지를 적기 위한 목표를 세워 본다.

어린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

“하루 해가 서산에 저물면
온 세상 어린이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 조용하게 드립니다.”
(“온 세상 어린이들”, *어린이 노래책*, 4~5쪽)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 방법과 전 세계에서 그 말을 쓰는 지역을 서로 짝지어 보세요. 어떤 언어는 한 국가 이상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 | | |
|------------------------|-----------------------|
| 1. gracias(그라시아스-스페인어) | 5. spaseba(스파세바-러시아어) |
| 2. malo(말로-통가어) | 6. arigatō(아리가토-일본어) |
| 3. thank you(땡큐-영어) | 7. asante(아산테-스와힐리어) |
| 4. shukriyaa(수크리야-힌디어) | 8. merci(메르시-프랑스어) |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신앙, 가족, 구제

복지

교회 복지의 목적은 회원들의 자립을 돕고, 빈곤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를 베풀도록 돕는 데 있다. 복지는 상호부조회 일의 핵심이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세상에 기초를 놓은 때부터 그분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시간과 재물과 자신을 헌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분과 함께하도록 부르십니다. ……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분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며, 또한 그것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¹

감독 혹은 지부 회장의 지도 아래 지역 지도자들은 영적, 현세적 복지를 돕는다. 봉사할 기회는 종종 자신이 담당할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알 수 있도록 영감을 구하는 방문 교사들로부터 시작한다.



성구에서

누가복음 10:25~37; 야고보서 1:27;
모사이아서 4:26; 18:8~11; 교리와 성약 104:18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선을 행할 기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22쪽.
2.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63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63쪽.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1842년 6월 9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빈곤한 자를 돕[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책임을 주었다.² 이 목표는 여전히 상호부조회의 핵심이며, 우리의 모토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린도전서 13:8 참조)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제5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에밀린 비 웰스 자매와 그녀의 두 보좌는 1913년에 상호부조회의 창립 원리를 기억하기 위해 이 모토를 발표했다. “우리는 병자를 돌보며, 궁핍한 사람을 돕고, 연로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경솔한 처사를 경고하고, 고아를 도울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여, 신권에 의해 부름 받아 그 조직에 속할 권한을 여성들이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영감 받은 가르침을 굳게 고수하며, 이 위대한 조직의 고유한 이름과 창립 목적 및 정신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목적을 선언하는 바이다.”³

현재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를 베풀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손길을 뻗치고 있다.(모로나이서 7:46~47 참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을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돌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2. 나는 내가 돌보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2013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3년 4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마음 속에서 정직을 가르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저는 1955년에 미국 공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첫 임지인 뉴멕시코 앨버커키로 떠나기 직전에 감독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은 그 축복에서 공군 복무 시기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저는 앨버커키 1지부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 형제님이 오시더니 자신을 지방부 회장이라고 소개하시고는 저를 지방부 선교사로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훈련을 받으러 온 것이라 몇 주밖에 머물지 않을 예정이며, 이후에 다른 곳으로 배치받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부 회장님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형제님께 부름을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사 훈련을 받던 중에, 몇 백 명이나 되는 장교들 중에서 우연히도 제가 갑자기 사망한 사령부 장교의 보직을 맡을 후임 장교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후 2년간 교회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 대부분을 회원들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가르칠 사람을 찾아서 집마다 찾아다니지 않고도 월평균 40시간 이상씩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회원들이 워낙 많은 사람을 소개했기에 하루 저녁에 두 가족을 가르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선지자들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에 권능과 축복이 담겨 있었음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앨버커키를 떠나기 전 마지막 일요일에 그 지역에는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온 성도들과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영의 증거를 느끼던 그 한 채의 집회소가 있던 도시에, 지금은 거룩한 성전, 즉 주님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그 친구들은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62~63쪽에서 발췌.

일반 선교사 기금

201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선교사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의 놀랍고도 감동적인 반응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선교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다수의 선교사가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 후하게 헌금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쪽.

생각해 볼 질문

- 여러분이 한 선교사 봉사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선교사 봉사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 왜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회에 더 이상 활동적이지 않은 여러분 지역의 사람들이 영의 증거를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복음 원리(2009), “선교 사업,” 189~195; LDS.org의 복음 주제에서 “선교 사업,”; 제프리 알 홀런드, “싸움 끝나는 날까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4~46쪽.

도덕적 절대 원칙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도덕적 절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극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 그리고 약속된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명만 골라서 지키려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변하시는 분임을 완전히 믿고 그분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며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율법에의 순종이 자유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8쪽.

선교사 권유: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 “십대 여러분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가르치도록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 청남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교육은 우리와 여러분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지원하시도록 권합니다.
- 부모와 교사, 그 외 다른 분들 역시, 자라나는 세대가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동안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범적인 생활은 친구들과 이웃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성인 여러분, 미래의 선교사들을 영적, 신체적, 재정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도움으로써 이 물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장년이 되신 부부들은 선교사로 나갈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들은 …… 그들의 단위 조직에서 선교 사업의 책임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 와드 선교 책임자 여러분[은] …… 하나님의 자녀를 구조하는 이 성스러운 사업에서 회원과 선교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5, 46쪽.



빈칸 채우기

1. “어둠이 그리스도의 _____ 을 이기고 승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7쪽)
2.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_____ 입니다.”(쿠엔틴 엘 쿡,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4쪽)
3.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 없는 존재를 다스릴 _____ 이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저는 이런 것들을 압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쪽).
4. “_____ 에 대한 헌신과 신의를 포기하면 그것은 사회를 결속시키는 접착제를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엘 톰 페리, “율법의 순종이 자유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8쪽)
5. 여러분이 외투에 명찰을 단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_____ 에 명찰을 하나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닐 엘 앤더슨,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8쪽)

문자 5 :하늘에 4 :옥류 8 :하늘에 2 :참 1 :참음



사진 출처: 데니스 르네 바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관대한 회원들이 낸 기금을 사용하여 고통받는 성인과 어린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식품과 의복, 그리고 다른 생필품을 세계 곳곳에 보냅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인도주의적 기부는 종교,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179개국에서 약 3,000만 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델린 에이츠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8쪽.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턴 지역의 젊은이들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 몇 개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교회를 알게 되어 선교사 토론을 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블로거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힘든 선교 사업이 아니라, 즐거운 선교사 활동이에요.’”¹
- “매일 전자 기기를 끄고 서로 다시 교류하는 시간을 보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든 기기를 끄십시오.”²
- “여러분의 전자 기기에 중요한 성구들을 표시해 두고 자주 들여다보십시오. …… 곧 성구 수백 개를 암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암기한 성구들은 힘든 시기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고 성신의 인도를 받게 해 줄 것입니다.”³

주

1. 닐 엘 앤더슨,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9쪽.
2. 로즈메리 엠 워슨, “우리가 하는 말”,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2쪽.
3. 리처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건전한 언어

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친구를 칭찬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 말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게 하고 소문을 퍼뜨리며 신성을 모독하거나 경시할 수도 있다. 자녀가 건전한 언어를 쓰도록 도울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격려가 깃들 것이다. 이번 호 60~61쪽에서 본부 청남 회장단의 래리 엠 김슨 형제는 깨끗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내면의 감정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은 우리가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 내면의 감정과 우리의 참모습을 나타낸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하면서 약속하듯이, 우리는 모두 항상 영을 동반하리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며,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가르침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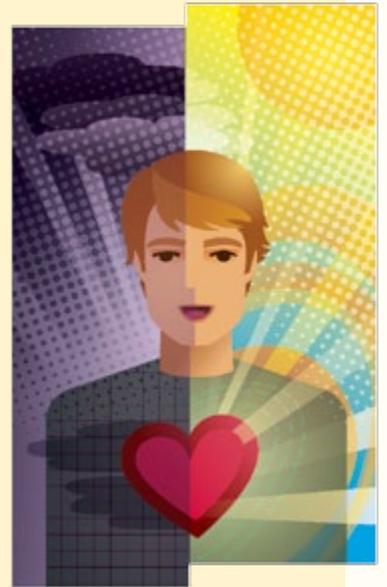
- 가족과 함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21쪽)에서 언어 편을 읽을 수도 있다. 주변 사람 중에 나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 60~61쪽에서 김슨 형제의 기사를 읽는다. 그의 기사를 이용해 각자 건전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목표를 세운다.

- 오른쪽에 열거된 경전 구절을 공부하고 토론한다.
- 이번 호 59쪽 “힘담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를 읽고 소문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문이 왜 도는지, 소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 언어의 힘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사를 읽는다. youth.lds.org로 가서 “For the Strength of Youth(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탭을 클릭한다. “Language(언어)”를 클릭한다. 그 화면 오른쪽에 있는 “Related(관련 자료)” 부분에서 “no cussing club(욕설 금지 동호회)”과 같은 동영상과,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다루는 청소년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가르침 제언

- “우리가 하는 말”(로즈메리 엠 워숍,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1쪽); “그런 말들”(리아호나, 2011년 12월호, 60쪽)과 “유순한 대답”(리아호나, 2011년 6월호, 70쪽)을 읽어 본다.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야기한다.
- 집에서는 하지 않을 말들에 대해 토론한다. “부탁해요,”



언어에 관한 경전 구절

시편 34:13~14

잠언 10:11

이사야 50:4

마태복음 15:11

에베소서 4:29, 31

니파이후서 32:2~3; 33:1

교리와 성약 20:54; 52:16;

100:5~6; 136:23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더 많이 칭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하면 어떻게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어린이 노래책, 83쪽) 혹은 친절에 관한 다른 노래를 부른다. ■

시기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마침내 성전에 이르게 된 숭고한 사랑 이야기.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빈 카 길먼이 집 너머의 알래스카 숲을 근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애뜻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워드 켈퍼 길먼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으며, 의사이자 충실한 남편이었다.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빈카와 워드가 영원히 인봉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복음을 받아들일 또 다른 기회가 필요했다.

빈카 헬렌 길먼의 이야기는 덴마크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코펜하겐과 같은 섬에 위치한 도시인 보르딩보르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입양한 세 형제들이 포함된 칠남매 사이에서 자라났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차라리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웁킨이]와 삼 년 간의 수용소 생활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자비로, 빈카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남았다.

전쟁 후에 그녀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부모님과 함께 유틀란드 오르후스의 여름 별장에서 머물던 어느 날, 그들은 숙박할 곳을 찾는 선교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젊은 선교사들이

아주 친절하고 우호적이었기에 빈카의 부모님은 손님용 숙소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

“선교사들과 잠시 동안 교회 모임에 참석해 보았지만 제 가족은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유대인이셨고 어머니는 루터 교도셨지만 우리를 종교적으로 기르지는 않으셨죠. 그 후에 저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선교사들은 나중에 코펜하겐에서 그녀를 잠시 방문하기도 했다. 빈카는 선교사들이 반가웠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1950년경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하게 되었어요.”라고 빈카는 말했다. “간호사이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증명서를 갱신해야만 했어요.”

그녀는 이주함으로써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교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도 얻었다. 그녀는 비하이브 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길 건너편의 개인 병원에서 근무했다. 또한 유타 심포니에서 첼로를 연주했으며 많은 훌륭한 친구도 사귀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했어요. 매일 점심 시간에는 텀플

스퀘어를 산책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종교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삶의 일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트레이크에서 2년을 지낸 후에 빈카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로 이사해서 덴마크에서 그녀를 가르쳤던 선교사 중 한 명의 가족과 함께 잠시 기거하다가 외과 간호사로서 스스로 생활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게 되어 독립해 나갔다. 그녀는 그 귀환 선교사와 데이트를 했고 약혼하기에 이르렀다.

빈카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지요.”라고 회상했다. 그들이 파혼하게 된 후 그녀는 이사를 했고 더는 교회 회원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오래지 않아 빈카는 치과 의사 겸 구강 외과 의사이며 새크라멘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워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해군 장교로 참전했던 강하고 잘생긴 남성이었다. 그는 빈카보다 열한 살이 많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둘은 1954년에 결혼했다.

그들은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장만했다.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멋지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누렸다.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했다.



워드는 그림을 그리고, 빈카는 계속해서 악기를 연주했다. 수십 년간 삶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워드는 1985년에 세상을 떠났다. 빈카는 1999년까지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곳에서 생활했지만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집이 그녀에게 너무 커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녀는 알래스카 헤인즈의 작은 마을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은퇴했다. 그리고 2006년에 선교사들이 문을 다시 한 번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일이 그냥 끝나 버릴 수도 있었다.

마침내 여러 번의 기회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적절한 시기가 온 것이다.

“저는 종교에 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었고, 저를 실망시키거나 낯설게 보이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빈카는 말한다.

“복음을 배웠을 때 모든 것 즉,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 맺어진 약속들, 몰몬경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교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성전 의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 주었고, 명확해서 마치 귀향하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오래전에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으며 그들 모두 제가 교회에 가입하는 데 영향을 끼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침례를 받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 가장 뜻 깊은 일이었어요.”

빈카는 남편의 생일과 같은 날인 2006년 10월 14일 침례 받았다. 일 년이 지나자, 첫 번째로 성전에 참석한

날(대리인을 통해) 워드와 함께 현세와 영원까지 인봉되는 의식을 받았다. 빈카에게 성전을 방문해서 평생의 사랑과 인봉되었던 경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과 인봉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빈카는 이제 성전 축복을 그녀의 친척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비록 86세이고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빈카는 의욕이 넘친다.

“제 남편과 그의 부모님, 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야 할 성전 사업이 많죠.

성전 사업과 계보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제 인생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왜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빈카가 눈을 돌려 집안을 바라보면서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통해 얻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낀다. 교회 회원이 될 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도 느낄 거예요. 또 강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잘 풀려나갈 때 여러분은 ‘천국이 따로 없구나.’라고 느끼며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빈카는 복음에 대한 열의와 사랑하는 남편과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불타오르는 소망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

튼튼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사를 더 읽어보려면 *엘 휘트니 클레이트* 장로의 “결혼: 보고 배우십시오”(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3쪽)을 참조한다.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2013년 8월 1일자로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변경을 발표했다. 지역 회장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나 제이 정원회 소속이다. ■

칠십인 회장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전 지역 보조



엘 휘트니
클레이튼
유타 북
유타 주
슬트레이크시티
유타 남



도널드 엘
홀스트롬
미 북동



테드 알
콜리스터
미 남서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미 북서
미 서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아이다호
미 중앙



울리세스
소아레스
미 남동

아프리카 동남



칼 비
콕
제1보좌



데일 지
렌런드
회장



케빈 에스
해밀턴
제2보좌

아프리카 서



터렌스 엠
빈슨
제1보좌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회장



에드워드
듀브
제2보좌

아시아



래리 와이
윌슨
제1보좌



게리트 더블유
공
회장



랜디 디
핑크
제2보좌

북 아시아



고이치
아오야기
제1보좌



마이클 티
링우드
회장



스cott 디
와이링
제2보좌

브라질



자이로
마자가르디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에두아르도
가바렛
제2보좌

카리브 해 제도



제이 데븐
코니쉬
제1보좌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회장



클라우디오
디 지빅
제2보좌

중미



케빈 알던컨
제1보좌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회장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2보좌

유럽



패트릭 키아론
제1보좌

호세 에이 테제이라
회장

티모시 제이 다익스
제2보좌

유럽 동



랜들 케이 베네트
제1보좌

래리 알 로렌스
회장

페르 지맘
제2보좌

멕시코



호세 엘 알론소
제1보좌

다니엘 엘 존슨
회장

아날포 발렌주엘라
제2보좌

중동/북 아프리카 지역



브루스 디 포터

브루스 에이 칼슨

교회 본부에서 관리함

태평양



케빈 더블유 피어슨
제1보좌

제임스 제이 해물러
회장

오 빈센트 할레크
제2보좌

필리핀



이안 에스 아던
제1보좌

브렌트 에이치 닐슨
회장

래리 에코 호크
제2보좌

남미 서북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제1보좌

후안 에이 우세다
회장

시 스코트 그로우
제2보좌

남미 남



조지 에프 제볼로즈
제1보좌

윌터 에프 곤잘레스
회장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제2보좌



에프 마이클 왓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순종

신앙의 특징

주님이 택하신 종의 거룩한 인도를 따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며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 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구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필수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1833년 5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 ……”

그리고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만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93:24, 27~28, 강조체 추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담긴 진리를 공부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에서 약속하는 축복을 배우고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에 따라 후기 성도들을 인도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1:39)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율법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에 순종한다면 삶은 더 진취적이고 덜 복잡해질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더 쉽게 감당해낼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¹

몬슨 회장님의 말씀은 고대 니파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하였더라”(니파이전서 3:7)





흔히 믿는 자 가운데 속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하며 따르려는 소망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카낭가에서 열린 지방부 대회에 참석한 42명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의무와 나아갈 방향을 상기시켜 주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께서 명한 일 행하겠나이다
주 방편 마련하시고 내 순종 원하네²

충실하게 계명을 지키라는 선지자의 권고와 니파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대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사 모로나이의 지시에 따라 선지자 조셉은 지상의 아버지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금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게 된 조셉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시며 내게 사자가 명한 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50) 조셉이 하늘과 지상에서 받은 권고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의 방향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기도하고 나가서 행합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면, 순종하고 기꺼이 봉사하려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흔히 믿는 자 가운데 속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하며 따르려는 소망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꺼이 나가서 행하고자 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카낭가에서 열린 지방부 대회에 참석한 42명도 그러했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순종하고 신앙의 발자취를 걸으며 그들은 6일 동안 걸어서 대회에 왔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대회에 왔습니다. 회복의 진리를 읽고 들었으며 복음 원리대로 살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³

영의 속삭임에 순종하고 신앙의 발자취로 나아간 그들은 6일 동안 걸어서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후 그들이 감리자에게 맨 먼저 물었던 것은 “언제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언젠가 선교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토록 오랫동안 찾던 진리를 알게 도와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6일간의 여정에 오를 수 없었던 200여 명은 선교사들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신앙으로 드린 기도

앙골라 인근에서는 반대 세력이 모국에서 복음이 뿌리내리는 것을 보려는, 충실하고 순종적인 성도들의 소망을 위협으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들을 보내어 선교 사업을 위한 문을 열려고 하셨으나 예정된 일정

바로 전날에도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대표자가 비자 발급 연기 문제로 출입국 관리자를 만나려 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앙골라를 헌납해도 좋다는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고 간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그밖에 다른 분들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충실한 회원인 파울리나 라살레테 더 쿤하 공갈베스는 굳게 닫힌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사절단이 앙골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초청장을 받고자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앙골라 정부 부처가 문을 닫기 몇 분 전에,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아프리카 남동 지역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장로님의 신앙이 담긴 기도가 끝난 직후, 초청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헌납일을 위해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요청으로 사람들은 그 기적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⁴

다음의 초등학교 노래 가사는 감미롭고 분명합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어린이 기도 듣고
응답하나요?⁵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순종은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으며 이 영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종을 충실하게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몬슨 회장님은 “안전과 평화”가 있을 것이기에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성도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⁶

주님이 택하신 종의 거룩한 인도를 따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며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28쪽.
2. “니파이의 용기”, *어린이 노래책*, 64~65쪽.
3. 저는 42명의 구도자들과 함께 카낭가에서 열린 지방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4. 저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행사를 직접 지켜보고,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함께 앙골라를 방문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께서 아프리카를 방문한 기사는 *Church News*, Nov. 6, 2010, 8~10, “Apostles Bless Two African Nations”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7쪽.
6. “계명을 지키라”, *어린이 노래책*, 68~69쪽.

순종은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으며 이 영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종을 충실하게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에서 안식처를 찾다

케냐에 사는 회원들은 복음대로 살고 세상으로부터 피난처를 마련하는
면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이다.

매튜 디 플리튼
교회 잡지

300 만 명이 거주하는 케냐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곳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트럭, 무타투스(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승합차 버스)가 분주하게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나이로비는 철도와 관광, 제조업이 활성화된 도시이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증권 거래소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케냐의 수도에서 남쪽으로 7킬로미터 정도 내려가면 조용한 시골 지역이 나온다. 나이로비 국립공원의 보호구역인 이곳은 마치 수백 년간 보호받아 온 것처럼 보인다. 나이로비의 지평선을 뒤로한 채 기린, 물소, 영양, 얼룩말, 하마, 큰 영양, 일런드 영양, 코뿔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곳이다.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는 사자가 잠을 자고 있다. 이 공원은 동물들에게 문명의

케냐, 나이로비 사진: 매튜 디 플리튼, 오프라, 스티븐, 코렐 소 사진: 제임스 달링턴



오프라 오우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한다.

케냐 전 지역에는 또 다른 소규모의 안식처도 있다. 교회 회원들은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었다. 그들은 복음대로 살면서 자신들이 설 수 있는 거룩한 곳을 만들고 있다.(교리와 성약 45:32;87:8 참조)

가치관을 통해 힘을 얻고

오프라 오우마는 청년 가치관을 기억하면 복음대로 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청년 가치관에 따라 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 안전할 수 있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오프라는 침례 받기 전에 이 가치관에 대해 먼저 배웠다. 17세가 되었을 때 오프라는 우연히 거리에서 선교사들을 보았고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오프라는 1년간 복음을 공부한 후 18세 때 침례를 받았다. 후기 성도 공동체에서 오프라는 영성을 키울 수 있었다.

“또래 청년 독신들과 교회에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함을 느껴요.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개 제 주변에는 후기 성도가 없거든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때때로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표준과

교회의 표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쇠막대를 붙들며

스티븐 오드히암보 마엠베는 경전 공부를 통해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겪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경전을 공부하면 끝까지 견딜 용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 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주니까요.”

스티븐은 몰몬경을 공부하며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교회 회원이었던 이모를 방문했을 때 이모는 스티븐에게 교회에 가도록 권했다. 몰몬경을 읽기 시작한 스티븐은 몰몬경이 참된지 알고자 기도했고, 답을 받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믿음에 의구심을 표하더라도





복음의 표준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버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에 맞지 않는 어떤 것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하겠다는 가장 큰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결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폭풍우는 이따금씩 우리 집 문을 때릴 것입니다. 그런 폭풍우는 이 필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 마음에 구주를 향한 사랑이 머문다면 폭풍우에 대처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며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모슨 회장,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3~84쪽.



스티븐 오드히암보 마엠베

경전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면 교회의 표준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제 신앙은 강해졌고 그 신앙을 통해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야곱서 7:5 참조)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주님 편에서 기다리고

쉐런 포쉐는 다르게 되겠다고 결심할 때 복음대로 사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했고 친구들은 그 선택을 존중했다. 쉐런은 의로운 삶을 살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택했다.

그녀는 선과 악 사이의 경계에 대해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 주위에서 맴돌겠다고 결정하면 의로운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워지죠. 언제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쉐런은 열네 살 때,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어머니를 통해 교회를 알게 되었다. 몰몬경을 읽기까지는 노력이 많이 들었다. 왜냐하면 난디 부족인 쉐런의 모국어는 칼렌진어였기 때문이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어로 몰몬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했어요. 참되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도했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쉐런은 침례 받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동안 교회와 세미나리, 청소년 활동에 참석하며 교회에



들어올 기회만을 기다렸다.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웨런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2013년 2월, 그녀는 조셉 포쉐와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인봉을 받기 위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으로 갔다. 그녀는 복음을 공부한 것이 쉽게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저는 인생이 과연 무엇이며 왜 지상에 있는지 알아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런 지식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 주죠.”

힘을 키우다

나이로비 국립 공원 안에는 검은색 코뿔소들을 위한 피난처가 있다. 이 시설은 사냥으로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색 코뿔소들을 키우고 다른 공원에 보내어 개체



사진 제공: 세론 포쉬

조셉과 웨런 포쉐

수를 늘리는 일을 한다. 이 시설은 케냐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중요한 피난처로 여겨져 왔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교회 회원들이 와서 힘을 받고 복음을 나눌 용기를 얻으며 신앙의 요새를 세울 피난처를 제공한다. ■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8쪽)를 참조한다.

아래: 나이로비 국립 공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뿔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이 정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계시는 실제적인 것이며, 주님의 방법에 따라,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어집니다.

영 으로부터 오는 계시, 즉 가르치는 사람,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 등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오는 영적 계시에 적용될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비될 때 자신의 편의에 맞추어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주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시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

계시를 받으려는 모든 노력에 따르는 기본 사항은 자신의 노력과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봉사하고 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대부분의 계시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바를 주님이 말해 주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진영에 관한 주의 말씀과 뜻”(교리와 성약 136:1)으로 알려진 계시는 1844년에 선지자가 순교한 이후 비탄에 잠긴 십이사도 정원회가 나부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던 시기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성도들이 나부에서 서쪽으로 아이오와를 건너 미주리 강에 있는 임시 진영까지 이동하는



시련의 나날을 보낸 후에 네브래스카 윈터쿼터스에서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을 평원 너머로 이동시키라는 그 계시는 1847년 1월 14일에 왔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산맥의 골짜기로 가는 길을 이미 약 1/3가량 온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한 지침을 간구하며,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내리찍는 햇볕 아래서 일하고 있을 때, 영의 속삭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시기와 유형

약 35년 전, 제가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여 연설을 들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편이에 맞는 특정 시간과, 대통령이 방문해서 연설해 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미국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브리검 영 대학교에까지 와서 2만 6천 명의 학생들에게 연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조건을 내걸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초대할 때 “언제 오시건 몇 시에 오셔서 무슨 말씀, 무슨 일을 하시건 대환영입니다. 모든 것을 방문 일정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2만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취해야 할 접근법이라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 인간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우주의 최고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방문 또는 의사소통에 대해 조건을 내걸거나, 개인적 편의에 맞춰 시간을 정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교리와 성약 88편에 나오는 위대한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원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63절)

그런 후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우리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가지고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너희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를 볼 날이 이르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낼 것임이라.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정한 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리라.”(68절; 강조체 추가)

이 계시에서 언급된 다음 원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모든 교통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강압할 수 없습니다.

대개, “그분이 원하는 방법”은 천둥소리나 눈 부신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서 일컫는 것처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열왕기상 19:12; 니파이전서

17:45; 교리와 성약 85:6)으로 옵니다. 이 원리를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경전에 기록된 위대한 현시만을 바라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리치는 선생에게만 배우기로 마음먹고 가장 현명한 가르침이 속삭임으로 올 때는 듣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거의 속삭임으로 옵니다.

깨달음과 평안으로서 오는 계시

영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가장 훌륭한 설명 중 하나는 1829년 4월에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에서 올리버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거의
속삭임으로 옵니다.**



하이럼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위쪽)가 받은 계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의 권능은 우리 마음을 밝혀 주며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 평강을 답해 줍니다.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이제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2~3; 강조체 추가)

이와 비슷하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의 영을 “순수한 예지”라고 표현하며, “홀연히 여러 생각이 떠오르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계시에서 올리버 카우드리는 자신이 주님께 간구했을 때 “네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교리와 성약 6:14)라는 말씀을 받았습니 다. 그 가르침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물었고 이에 내가 네 마음을 밝혀 …… 주었음을 너는 알고 있나니”(15절; 강조체 추가) 주님은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거듭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13; 강조체 추가) 이런 성구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추가로 주신 가르침을 통해 그가 “이 일들의 진실”(교리와 성약 6:22)을 알기 위해 기도했던 때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올리버에게 어떻게 계시를 주셨는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23절; 강조체 추가)

우리는 이런 계시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영의 권능은 우리 마음을 밝혀 주며 우리가 물었던 질문들에 대해 우리에게 평강을 말해 줍니다.

계시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님을 이런 계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 때까지 그에 관해 주님과 교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한 후에야 확증이 옵니다.

1829년 4월에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에서 받은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올리버가 몰몬경을 번역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아담이 양 떼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치라는 계명에 순종한 직후에 주님께서 아담과 교통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모세서 5:6)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7~8; 강조체 추가)

이것은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못 오해하는 가르침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영의 가르침은 흔히 느낌으로 옵니다. 이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운" 것을 느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신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말은 제 생각에는 연소와 같이 뜨거운 열의 느낌이 아니라 평안과 따뜻함, 차분함과 선함의 느낌입니다.

계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빈도에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빈번하게 계시를 기대하는 까닭에 그릇된 길로 이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영의 작용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강하고 인상적인 영적 경험은 우리에게 그리 흔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²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과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후 그들에게 있었던 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아담에게 양 떼의 첫 새끼를 주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그와 교통하셨습니까?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모세서 5:6; 강조체 추가)

가장 뛰어난 복음 교사 중 한 사람으로, 브리검 영 대학교와 교회 교육 기구에서 교육감으로 일했던 윌리엄 이 베렛은 끊임없거나 계속되는 계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영의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며 우리를 혼동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짓 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이 교회에서 가장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에 관하여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영으로부터 개인적인 확신을 얻고 싶어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들은 가장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런 응답은 그릇된 원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³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사소한 것들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좋은 은사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계시가 계속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구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 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계시를 주실만 하다고 여기실 때, 우리는 계시가 계속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시와 간증

시현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휘장 저편에서 음성도 들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비범한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교리와 성약 63:64 참조), 만약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 놓는다면 계시의 통로가 닫히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계시는 시현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로 말하는 음성보다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나 느낌으로 옵니다. 저는 이러한 종류의 계시가 실재함을 간증합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저를 인도하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는 자신의

간증이나 영적인 발전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 특히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귀중한 간증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님은 바로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너무나 기적적이었기 때문에 경전에 수록된 몇 가지 개별적인 예를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회원들은

점진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점차 거듭나고 빛과 지식을 더하며 의롭게 되려는 소망 또한 더하게 됩니다.”⁵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전에 흔히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는 깨우침입니다. 흔히 우리는 최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용인되는 선을 넘어 길을 벗어났다면 이를 제지하는 영의 느낌에 따라야 합니다.

계시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계시는 주님의 방법에 따라,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옵니다.

이러한 것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영을 언제나 동반할 수 있는 권리인 성신의 은사가 있습니다.(요한복음 14:26; 16:13 참조) ■

2001년 6월 27일 신임 선교부 회장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2쪽.
2. Boyd K. Packer, *That All May Be Edified*(1982), 337.
3. William E. Berrett, Joseph Fielding McConkie and Robert L. Millet, *The Holy Ghost*(1989), 29-30.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31쪽.
5. Bruce R. McConkie,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Brigham Young University 1976 Speeches*(1977), 5.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귀중한 간증을
얻습니다.**



지도자가 계시에 이르는 길

지역 지도자와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각자의 부름에서 영감으로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원리를 소개한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 해 전에 부름받아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한 지부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을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구체적으로 원하시는지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었을까요?”

개종자인 이 지부 회장은 젊은 아버지였던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 준 두 가지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경전 공부와 기도였다. 그래서 목적을 새롭게 다지고 실천에 옮겼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교리와 성약 9편 8절을 읽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주께] 물어야 하나니’ 이 구절을 다시 읽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계시에 이르는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모든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지도자들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영감을 구할 때 신성한 인도를 촉진하는 어떤 복음 원리가 있다는 것을 거듭 배우게 된다. 그런 원리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함께 협의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영감을 느껴도 그것을 보좌들과 함께 상의할 때 다시 확신을 얻습니다.” 지부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보좌들도 같은 느낌이었다는 단순한 확인만 있어도, 하나로 뭉쳐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도록 보좌들이 도와주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려고 했던 일을 바꾸거나 이미 한 일을 더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그런 뒤 우리는 하나로 뭉쳐 앞으로 나갑니다.”

지침서를 살펴보고,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을 갖고 기도하면서도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제가 받은 가장 좋은 조언 몇 가지는 연차 대회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옵니다.” 어떤 와드 청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그간 공부했던 것들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니다.”



영감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감을 통해 저와 교통하실 때마다 저는 언제나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감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배웠으며, 그런 영감을 자주 받았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4쪽.

어떤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의 한 보좌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단이 함께 모이면, 우리는 늘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를 짧게나마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주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지침을 따르도록 영이 도와줍니다.”

“주님의 교회가 평의회 정신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세계 큰 위안이 됩니다.” 한 스테이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지혜와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제일 나은 방법을 논의하는 평의회를 감리하는 것은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경험입니다. 그들의 영감을 통해 여러 대안을 고려해 보고, 영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린 제 결정을 주님께 갖고 나갈 때 어떤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¹

조언을 구하는 것은 때때로 더 큰 식견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감독에서 해임된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재정 문제가 있는 어느 가족을 돕고 있었는데 재무 상담자로 일하는 와드의 한 형제님과 상의하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제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 가족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와드의 다른 지도자들이 진취적으로 움직여서 각기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던 다른 한 감독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다. “와드에 남편과 사별한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감독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자매님은 감독이 한 번만 와도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자주 그분을 뵈려고 애썼지만 제겐 어린 자녀를 비롯해 많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보좌 한 분과 함께 그분을 다시 뵈러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매님, 감독으로서 제가 자매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매님을 그렇게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두

분의 충실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두 분의 훌륭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에게 각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자매님을 방문하고, 필요하면 더 방문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매님이 어떤 도움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분들이 제게 보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그러자 그 자매님은 ‘ 좋습니다. 감독님.’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분이 알고 싶어하는지를 제가 물었고, 그분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그분들이 제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이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매님을 보살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방법을 이해하셨군요.’”

2. 귀를 기울여 보살핀다

지도자들은 또한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 영감을 구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자매님들을 만날 때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 이상의 것을 들으려 노력합니다.” 어느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을 통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눈에서 그것을 보거나 그분들 표정에서 그것을 간파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상호부조회 회장입니다. 지금 자매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구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자문해 볼 때 영감을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와드 평의회에서 자매들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어느 와드의 초등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감독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늘 물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귀담아 들으세요. 감독님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독신 자매들의 통찰력이 훌륭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을 느끼고 힘을 얻고 싶을 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래할 때 같이 앉습니다. 그러면 늘 기운이 납니다.”

“또한 우리는 귀담아 듣는 데에는 영에 귀 기울이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한 대체사 그룹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 지도자의 성공을 가장 정확하게 가늠하려면 그분이 영을 느끼고 따르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 점을 거듭해서 몸소 설명해 주셨습니다.”²

3. 거룩한 곳에 선다

지도자들은 또 특정 장소에서 더 원활하게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제게 영감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은 성전입니다.” 감독단에서 봉사하는 한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을 때, 저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걱정에서 벗어나 영의 속삭임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사무실로 생각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한 스테이크 축복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방이 영이 편안히 머무는 곳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저는 축복을 준비할 때 그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접견도 하고 축복도 줍니다.”

“우리 집회소는 예배 장소로 헌납된 곳입니다.” 어느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주중 저녁 시간에 종종 편안하게 있고 싶을 때에는 예배실에 앉아 봅니다. 워드 회원들에 대해, 또 구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저에게 거룩한 곳은 초등학교입니다.” 또 다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즐거운 마음을 느끼고 힘을 얻고 싶을 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래할 때 같이 앉습니다. 그러면 늘 기운이 납니다.”

“기도는 모든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지부의 청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있을 때 받은 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 간구하여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4. 권세 있게 행동한다

“우리 워드에는 부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원이 몇몇 있었습니다.” 한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감독단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설명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권세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영감에 따라 부름을 받았으며 또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영감을 구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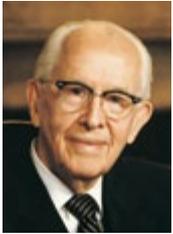
그 감독과 그의 보좌들은 계시에 이르는 길, 즉 모든 교회 회원과 지도자에게 열려 있는 길을 따라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갔던 길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

주

1. 엠 러셀 벨라드, “평의회와 함께 협의함”,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24~26쪽.
2. 예를 들어, 토마스 에스 몬슨,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6~89쪽 참조.

지도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ds.org/service/leadership](https://www.lds.org/service/leadership)의 지도자 훈련 자료실을 참조한다.

가족이 힘을 얻는 경전 공부



약속이 있는 공부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전 연구에 몰입한다면, …… 기타 모든 활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간증이 커지고 헌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은 강화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말씀의 힘”, 리아호나,
1986년 7월호, 89쪽.

더 꾸준하고 의미 있는 경전 공부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쌓는다.

로리 풀러
교회 잡지

다 음 아이디어를 통해 여러분과 가족은 경전 공부를 강화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예는 제언이므로, 여러분은 이를 개인적이나 가족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질문을 생각하며 공부한다

대답을 찾기 위해 경전을 보는 것은 더 훌륭한 경전 공부를 하는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은 기도로 공부를 시작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간구할

수 있다.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에 표시한다. 경전 여백이나 별도의 공책에 기록을 한다.

가족이 함께 공부할 때 자녀들이 답을 찾고 싶어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다음에 경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읽어 나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아보고 중간마다 멈추고 토론한다.

주제별 연구

예를 들어, 기도와 같이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골라 경전 안내서에 있는 항목을 읽는다. 그런 다음 그 주제와 관련하여 경전 안내서에



가정
∞



있는 성구를 읽는다. 성구 목록에 있는 성구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표시한다. 기도에 대해 좋아하는 성구를 표시하면, 그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참조 성구가 생기는 것이다.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찾은 모든 성구에 지정된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끝나면 공부할 다른 교리를 선택하고 새로운 색을 사용하여 구절들을 표시한다.

가족이 함께 공부할 때, 함께 주제를 선택하고 각 자녀에게 지명해 주어 몇 구절을 조용히 읽고 좋아하는 구절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한 주제를 끝내는 데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매일 공부하는 시간이 끝날 때 토론하고 기록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꾸준히 관리한다.

인도를 찾기 위한 공부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경전 공부를 활용하여 생활과 부름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도를 찾는 방법을 설명했다.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뒤에 아이어링 회장은 대답 목록을 적고, 각 항목을 색상 코드로 표시하고, 보급형 경전에 그 목록 사본을 풀로 붙여 두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목록에서] 첫 번째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개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찾을

때마다, 푸른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제가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주제 색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¹

가족이 함께 공부할 때는 함께 공부하고 싶은 여러 주제를 결정한다. 이런 관심사를 다 적어서 보이는 곳에 둔다. 읽어 나가면서 각 자녀에게 구체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성구를 찾아서 표시할 것을 권유한다.

하루에 몇 구절도 읽기 어렵고, 또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거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상황이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가족 경전 공부에 대해 아주 기억에 남거나 성공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을 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중대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²라고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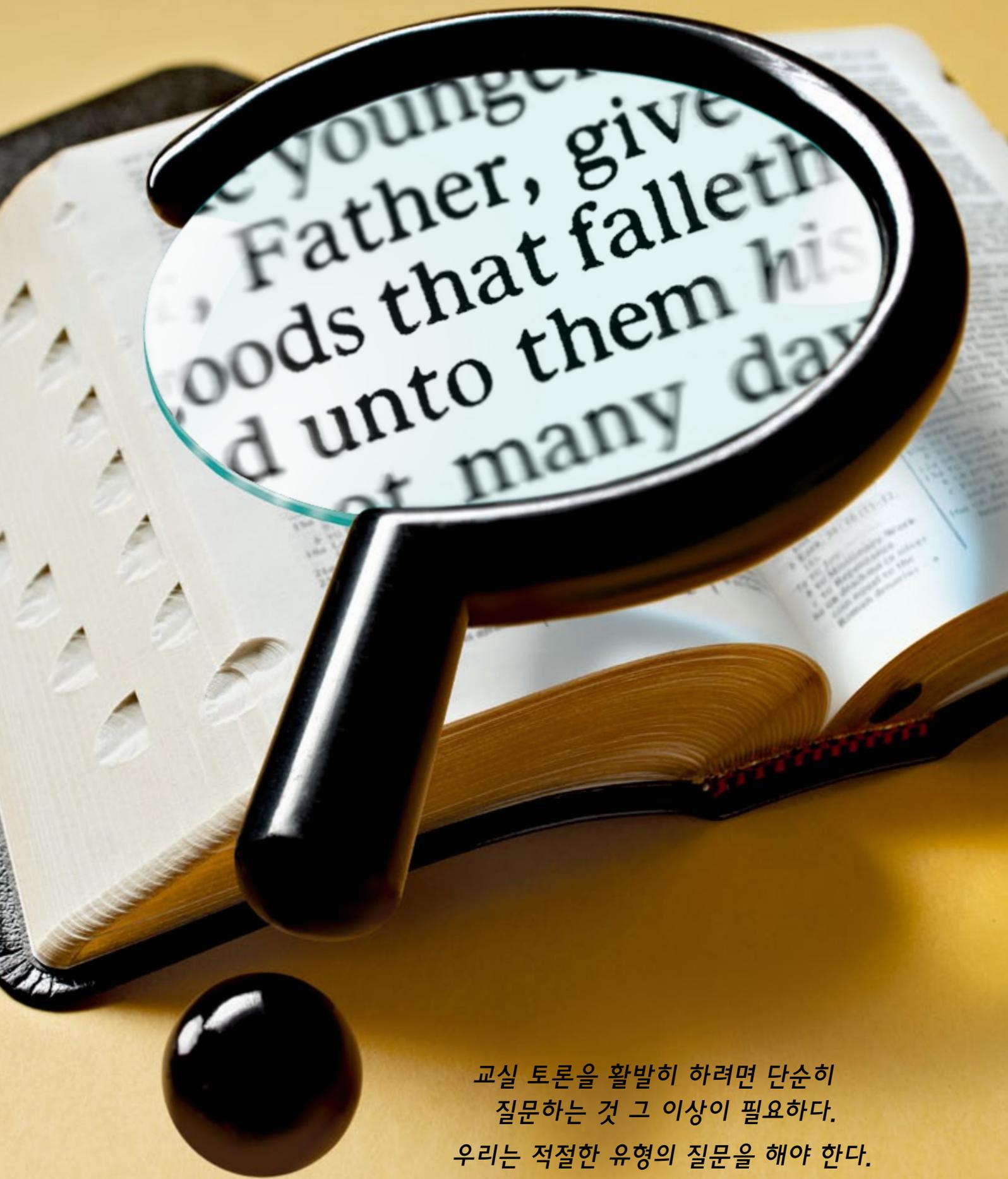
더 꾸준히 경전을 읽고 또 의미 있게 공부하며 경전을 열심히 읽으면서 노력해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경전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가족에게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실 것이다. ■

주

1.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리아호나*, 2005년 7월호, 10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쪽.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키





교실 토론을 활발히 하려면 단순히
질문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적절한 유형의 질문을 해야 한다.

훌륭한 질문, 훌륭한 토론

잭 라이언

한 주일학교 교사가 묻는다. “최초로 지상에 온 두 사람은 누구죠?” 그녀는 십대 청소년인 반원들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지만, 손을 드는 사람은 없다. 반원들은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무심하게 경전을 보는 척한다.

“쉬운 질문인데요.” 교사가 말한다. “대답할 사람 없나요?”

옆 방의 복음 교리반에서 교사가 묻는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지요?”

한 자매가 자신 없어 하며 손을 든다. “신앙 아닌가요?” 반원이 도리어 묻는다.

교사가 대답한다. “참 훌륭한 답변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다른 분 계신가요?”

침묵이 흐른다.

교사들은 반원들을 공과에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저 앉아서 듣는 학생보다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위에서 한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다.

“최초로 지상에 온 두 사람은 누구죠?” 이런 질문은 그 대답이 너무 분명해서 대답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에 효과적인 질문이 못 된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지요?” 이 질문 또한 비효과적이다. 이런 질문은 교사 자신을 제외하면 교사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어떤 사실에 관해 묻는다. 구체적인 답이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훌륭한 교실 토론은 여러 유형의 질문, 아주 묘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답이 없는 질문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개방형 질문

성인 반 교사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복음 원리가 가장 중요했나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잠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면 잘 된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기다린 다음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반원들이 복음과 관련하여 겪은 가슴 뭉클한 실제 경험을 들으면 된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극을 받아 연달아 이야기하게 된다. 이윽고 반원들은 흥미진진하고 영감 어린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반원들이 신앙과 같이 구체적인 것을 토론하고 싶어하면 이처럼 말할 수 있다. “오늘은 복음의 첫째 원리인 신앙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뒤 신앙에 대해 구체적인 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

1. “신앙이 여러분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2.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신앙을 갖기 바라신다고 생각하나요?”
3. “우리 신앙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실 토론에는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결국 반원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영적인 내용들이다.

많은 대답이 쏟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칠판에 그 대답을(간략하게)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토론을 마무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훌륭한 목록이 생긴다.

개방형 질문에는 다른 장점도 있다. 토론에 의견을 내지 않는 반원들도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해도와 간증이 커질 수 있다.

경전에 대한 토론

개방형 질문은 경전을 토론할 때도 효과적일 수 있다. 많은 교사가 경전 구절을 반원들에게 읽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들을 참여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꼭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잘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기가 서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읽는 소리를 반원들이 듣기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다.

교사는 교실 앞에서 있기에, 교실에서 가장 듣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읽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하고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음 사례를 읽으면서,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교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교사: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탕자의 비유에 관해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탕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 중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볼까요? 121쪽입니다.”(쪽수를 알려 주면 경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반원들이 구절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사가 읽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가족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개방형 질문에 주목한다.)

학생: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준 것 같습니다.”

교사: “정말 그렇죠? 보통,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들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던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학생: “제 생각에 둘째 아들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것이 많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학생: “아직까지는 정말 조용합니다.” 반원들이 웃는다.

교사: “그래요. 그 아들의 성품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유념하고 계속 읽어 봅시다.”

이 사례에서 여러분은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토론을 장려했는지 발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은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목록이며,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대답에 틀린 것은 없는 것이다. 왜? 이 단락의 첫 번째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한, 그릇된 대답이란

없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교실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더라도, 반원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이것은 반원들의 대답을 환영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들이 이내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적었다. “읽으면서,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교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 같은 “토론”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데 이런 말이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그렇게 적은 것이다.

이 사례에서 교사는 이런 기법을 두 번 사용했다. 한 번은 “탕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 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한 번은 “그 점을 유념하고 계속 읽어 봅시다.”라고 말했다. 두 번 다 반원들에게 집중해야 할 소재를 알려 주었고, 이렇게 해서 반원들은 교사가 개방형 질문을 할 때 답변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읽고 있는 구절에 대해 반원들이 어떤 연결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수동적으로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으면서 성구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읽기가 끝나면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반원들에게 부탁하고 토론을 이끄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토론을 하면 여러분은 사실 교재가 아니라 경전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 유념한다. 물론 공과를 준비하려면 교재를 활용해야 하고, 교재가 개방형 질문의 귀중한 출처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가르치고 배울 때 근본적인 초점을 경전에 두어야 한다.

초점을 유지하라

토론을 많이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다. 공과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토론을 시작해야 할지를 알고, 필요하면 반원들을 핵심 토론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작은 지침만 주면 된다. 그 지침이란 “흥미롭지만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앙이라는 토론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이다.

반원들이 여러분의 공과 주제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토론을 하면서

그에 맞게 상황을 이끌어 나간다.

끝으로, 가르친 내용을 상기하며 요약한다. 요약하는 데 찬송가 가사나 시 구절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려는 말을 알려 주고, 그 말을 한 뒤에 여러분이 한 말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유용한 기법입니다.”¹

논의된 진리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분명히 전한다.

느낌과 경험을 나누라

여기에는 토론을 훌륭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적절할 시기에 영은 반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야기를 공과 시간에 나누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

물론 우리는 개인적이거나 성스러운 경험을 깊이 나누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느 공과에서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복음 교리반 교재에는 이런 권고가 있다. “공과에 있는 원리와 관련된 통찰력, 느낌 및 경험을 함께 나눈다. 반원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권유한다.”²

교실 토론에는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결국 반원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영적인 내용들이다.

이런 기법을 사용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것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영성과 복음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공과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끝나고 도리어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반원들이 훌륭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경전에서, 서로에게서, 주님의 영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반원들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Boyd K. Packer, *Teach Ye Diligently*, rev. ed.(1991), 354-355.

2. 신약전서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1997), vi

복음의 품 안으로

무신론을 믿는 부모님에게서
자라면서 젊었을 때는 신이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1989년에 장 파열로 8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입원해 있던 시기에 대해 별 기억이
없지만, 수술을 마친 내 옆에 흰 옷을
입고 서서 “돌아가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을 본 것이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다. 내가 저항했을

입원해 있던 시기에
대해 별 기억이
없지만, 흰 옷을 입고
서서 “돌아가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을 본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형제여,
그대는 이미 죽었소.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하오.” 그 말을 하자 나는
돌아와서 큰 고통 속에서 깨어났다.

퇴원을 한 뒤 나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나는 여러 종교를 찾아보고 그에
관해 읽어 보기 시작했다. 신약전서를
읽으면서 나는 진리라는 것이 지상에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한 조사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졌다. 꿈 속에 계속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나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점점 더 힘들어졌고
혼란도 커졌다. 나는 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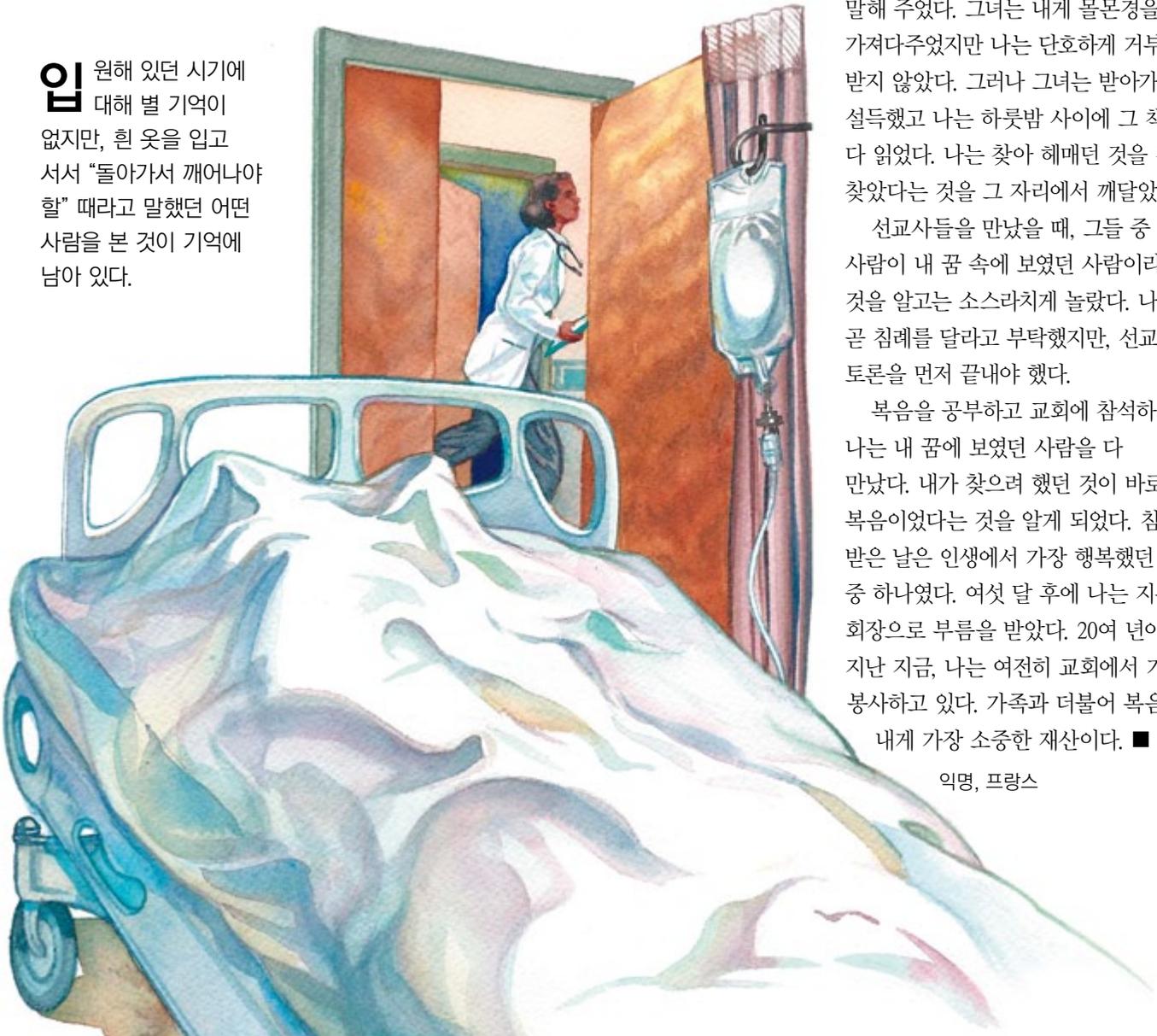
이런 기도를 드리고 얼마 후, 새로운
직장 동료로 만났다. 그녀는 내 고민을
알았고, 나는 진리를 찾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내게 물문경을
가져다주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받아가라고
설득했고 나는 하룻밤 사이에 그 책을
다 읽었다. 나는 찾아 헤매던 것을 결국
찾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내 꿈 속에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곧 침례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선교사
토론을 먼저 끝내야 했다.

복음을 공부하고 교회에 참석하면서
나는 내 꿈에 보였던 사람을 다
만났다. 내가 찾으려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례
받은 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다. 여섯 달 후에 나는 지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기쁘게
봉사하고 있다. 가족과 더불어 복음은

내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

익명, 프랑스



가장 간절한 기도

대학 신입생 때 나는 조그만 마을의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다. 마지막 교대 근무를 하고 밤 11시에 일을 마쳤다. 야간 치안이 상당히 좋은 마을이었지만 혼자서 가게 문을 닫을 때면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었던 어느 날 밤이었다. 가게 청소를 마치고 현금 계산기를 닫으러 가는데, 섬뜩한 느낌이 엄습했다.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어떤 뚜렷한 이유는 없었지만,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경찰서로 전화하는 과잉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보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결국 나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내가 이제껏 드렸던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

일어서자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기로 차량 한 대가 오는 소리가 그 즉시 들렸다. 놀랐지만, 다행스럽게도 경찰관이었다. 그 경찰관이 신용카드를 꺼내서 자기 순찰차에 연료를 넣는 사이, 나는 신속하게 가게를 닫아야 하는 내 책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 경찰관이 있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가 주유를 끝내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내 일을 마치고 싶었다. 연료 주유를 마친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더니

차에 앉아 통화를 했다. 그는 내가 잠금 장치를 하고 내 차를 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시각에 편의점을 떠났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내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된 것에 무척 놀라운 마음이 들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감사드렸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진작에 배웠지만, 그날 밤에서야 비로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에서 느꼈던 그 평안을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신앙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

제이미 린 치더스터, 미국 유타

일어서자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기로 차량 한 대가 오는 소리가 그 즉시 들렸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후기 성도에 대해 잘 아는 지역에서 일곱 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이런 이유로 어느 날 나에 대해 다른 교사가 한 말을 다른 동료에게서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크레이그 선생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 알지?”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28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로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이 교사에게 굳이 간증을 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었다. 그 선생님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후기 성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알려 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성신은 내가 말해야 할 바를 속삭여 주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우리 집에 있던 모든 그림이 생각났다. 그림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고, 내 인생에서 각별한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구주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나라 오는 따뜻한 느낌들이 많이

성신은 내가 말해야 할 바를 속삭여 주었고, 그날 아침 학교에서 나는 그 선생님의 방으로 갔다.

되살아났다.

한 그림은 폭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구주를 묘사한다. 이 그림을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며, 또한 남편을 잃은 비통한 마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여러 그림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구주의 교회에 속해 있기에 그간 받아 왔던 축복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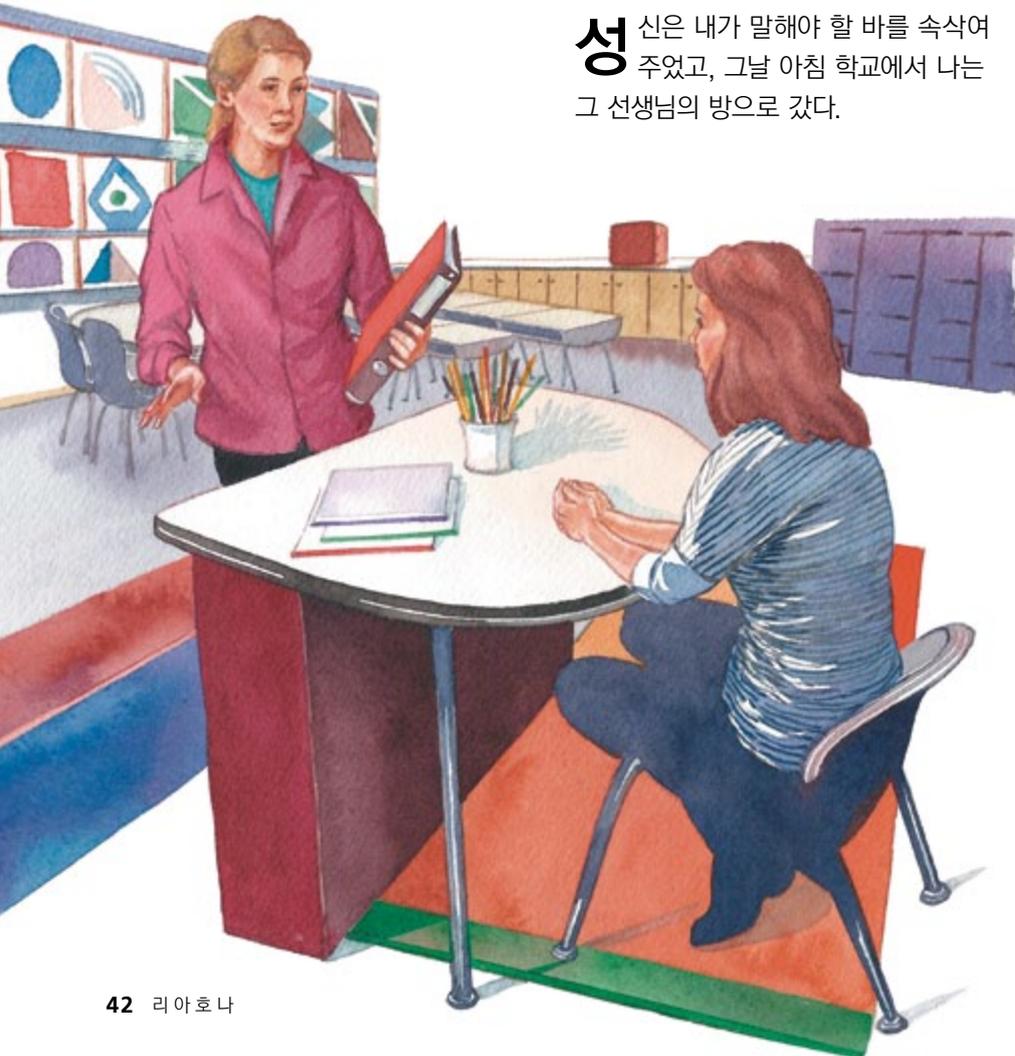
그날 아침, 학교에서 나는 그 선생님의 방으로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구주에 관한 그림을 집에 몇 점이나 갖고 있나요?” 그녀는 그림은 없고 십자가만 두 개가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집에 있는 구주의 그림과 거기에 묘사된 장면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런 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간증했다.

내가 작년에 살아갈 기운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었다고 동료 선생님에게 말했다.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를 통해 어떻게 내 자녀들과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내 남편을 잃고서도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올 수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자리를 뜨면서 우리는 서로 껴안았고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녀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

캐시 프엘스텔 크레이그, 미국 애리조나



내가 배운 것과는 달랐다

어느 날 직장에서 어머니가 시킨 중요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자리를 몇 시간 비워야 했다. 아침에 사무실에 들러 오후에는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직장 동료에게 말했다. 쉬는 시간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시간기록계를 조작해서 도와줄게.”

“아니, 괜찮아.” 내가 말했다.

사무실을 나와 버스를 타러 가는데, 친구는 시간기록계 있는 곳까지 따라 나왔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후

근무 시간에 맞춰 카드를 넣어 놓으면 내가 집에 갈 때 네 카드를 찍어 놓으면 어떨까?”

내가 말을 하려고 하자, 친구가 말했다. “우리 월급은 최소 수준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리 큰 돈도 아닌데 뭘. 게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나는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친구의 말은 일리가 있었고 날 도우려는 의도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다.

용기를 내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친구야, 주님은 선한 분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어.”

친구는 자리를 떴고 제안을 거절해서 조금은 언짢은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봉급이 얼마나 줄어들지 걱정이 되었다. 다음 달에 식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찬송가 구절이 기억났다. “맘이 정직하면 하나님 사랑 축복 도움 나눠 주리.”¹ 다른 찬송가 구절도 떠올랐다. “의의 일 행하면 주 너를 축복하시리.”²

이런 가사를 생각하니 유혹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기로 한 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날 이후로 삼 년이 지났고 나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하셨다. 시간은 걸렸지만 찬송가의 약속은 정말로 실현되었고, 내가 의로운 것을 계속 선택하면 많은 축복이 계속 올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그 찬송가가 무척이나 고맙다.

아이린 타니에그라, 필리핀

주

1. “촌음을 아껴 쓰고”, 찬송가, 147장.
2.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오후에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직장 동료에게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시간기록계를 조작해서 도와줄게.”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 선택에 대해 기도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십 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건이 있기 전후로 …… 역경이나 저항 및 암흑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도 가장 없는 진리입니다.”(“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4쪽)

그러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버렸다는 뜻은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종종 우리 길이 환히 빛날 때까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 현대의 선지자들은 인내하며 응답과 인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뜻 깊은 말씀을 전해 주었다.

빛의 가장자리로 걸어가십시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은 직후에 저는 해롤드 비 리 장로님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제 문제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을 찾아가 뵙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 권고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었으나 그분이 권고하신 대로 제가 행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리 장로님에게로 돌아가 어떻게 권고를 실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문제는 장로님이 시작을 하기도 전에 결과를 알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처음에 해야 할 한두 가지 정도는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평생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빛의 가장자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 후 어둠 속으로 몇 발자국을 움직이면 빛이 나타나 장로님 앞에 놓인 길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물문경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이더서 12:6)

President Boyd K. Packer,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The Edge of the Light,” BYU Magazine, Mar. 1991, magazine.byu.edu.

신뢰하며 계속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신중하게 준비했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여전히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이므로 여러분은 감사를 드려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구주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다면,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신뢰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의 속삭임에 민감하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잘못된 선택을 가르쳐 주는 생각의 둔하여짐을 경험하게 되거나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화평이나 뜨거운 느낌을 가슴 속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생활하고 신뢰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무런 경고의 느낌 없이 여러분이 너무 멀리까지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쪽.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나는 아내와 함께 두 가지 문제, 즉 언제 자녀를 낳아야 하는지, 또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만만치 않은 문제로 여러 시간을 대화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우리의 대화는 점차 열띤 토론으로 변하더니 결국은 논쟁에 이르렀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우리의 가정 복음 교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다.

두 형제님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분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다. 한 분은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해안에 이르렀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애굽인들은 물밑 듯 몰려오고 있었다. 경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출애굽기

14:10)고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인도를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출애굽기 14:15)

우리 가정 복음 교사들이 이 성구를 읽자 낙담과 두려운 느낌이 멀리 사라져 버렸다. 우리 부부는 그들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며 홍해 바닷가 언덕에 마냥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 행하시는 구원을”(출애굽기 14:13) 보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보유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토론을 멈추고 신앙으로 행동을 시작해야 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자 우리 앞에 놓여 있던 선택의 망망대해가 갈라졌고, 우리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받은 축복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방문해서 첫발을 내딛도록 영감을 준 가정 복음 교사에 대해 감사드린다.

스티븐 스코트 스토크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지 마시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필멸의 시험 기간을 헤쳐 나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할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의 속삭임과 위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항상 열려 있도록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6쪽.

인내하며 계시를 기다리십시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 가르침을 받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계시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열망과 합당성과 준비에 따라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는 그러한 계시는 점차로, 그리고 부드럽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교리와 성약 121:45)”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8쪽.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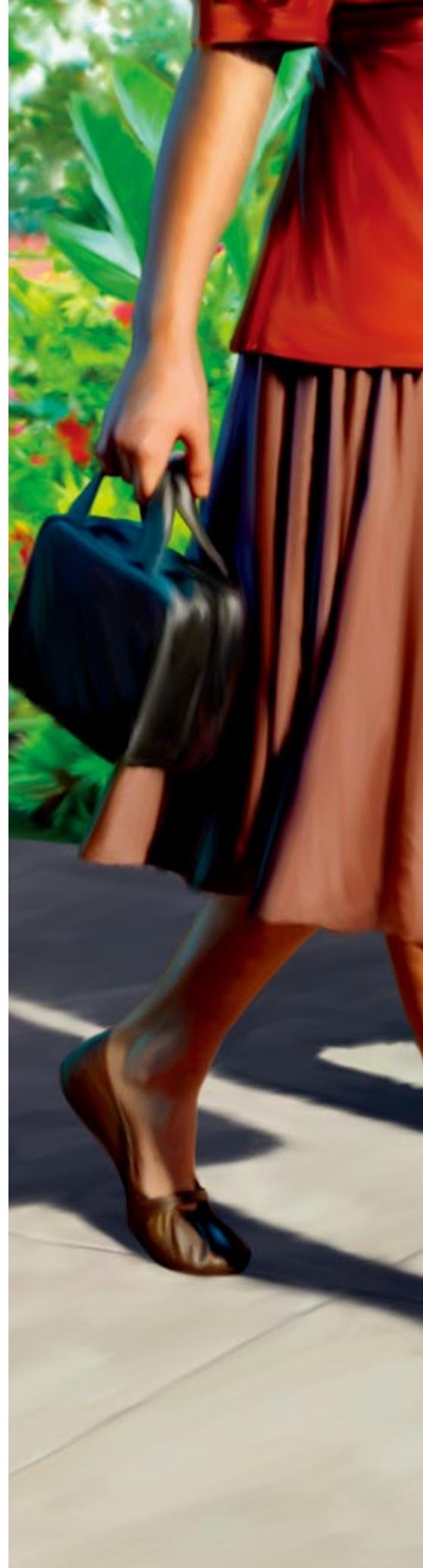


“바쁜 시기에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께서 제게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분과 접견하는 동안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부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름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워스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살다 보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앙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발 앞을 비춰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기쁘게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신권 봉사의 이유”,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59쪽.





기적을 낳는 신앙

어릴 적부터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 단순한 바람은 점점 커다란 소망이 되어 갔다.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삶은 쉽지 않다. 아버지와 오빠는 직업이 없었기에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가족을 그렇게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 나에게 선교 사업 비용을 모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이더서 12장 12절을 읽었다. “이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후 신앙에 관해 가르치신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의 말씀을 읽었다. “재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족의 부양을 곧 책임져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씨앗을 심는 일이며, 그에 따르는 수확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가족, 영적인 보호, 평화, 그리고 영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¹

이 가르침 덕분에 나는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또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 더 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지부 회장님은 접견을 하시면서 이제 맨 처음 지불해야 하는 돈을 내고서 선교부 회장님과 접견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정말 행복했고, 신이 났다. 그 주에 월급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필요한 액수만큼 돈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 사업 비용을 아버지 치료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또 막막해졌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 친척들과 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교회 회원들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기적처럼 아버지는 한 주 후에 퇴원하셨고, 나는 선교사 비용을 낼 수 있었다. 스물두 살이 된 후 2주가 지났을 때, 필리핀 올롱가포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장이 도착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음을 안다. 또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신앙으로 행하면, 그분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가 순종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

치니 라군자드,
필리핀 불라칸

주

1. 스펜서 더블유 김볼, *기적을 낳는 신앙*(1972), 11;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143쪽 참조.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일하며,
사랑할 때,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할 네 가지 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심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는
듣겠습니다. 둘째, 저는 배우겠습니다.
셋째, 저는 일하겠습니다. 넷째,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모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간구하고, 여러분이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하게
되고, 시내 산에서 들렸던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는 말씀도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리라 믿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러한 소망이 반영된
행동을 하게 되고, 성신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항상 경청해서,
그 속삭임과 방향을 알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에 응할 기회를

매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듣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둘째, 저는 배우겠습니다. 배우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음으로써 더 많이
배우겠다고 다짐했으며, 여러분도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라는 주님의
권고를 가슴 속에 새긴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표준 경전에서
배우고, 교회 지도자들의 생애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배웁시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구주이신 주님의
삶을 더 열심히 공부할 때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갈 길을 마련하신
구주께서 절정의 시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했으나 그들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느끼셨을
실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은 겹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신 후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인내를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시 *저와 함께 배우겠다고*

다짐하길 촉구합니다.

일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일하겠습니다. 바라고
꿈꾸며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는 자,
그는 곳간에 쌓아 두는 자니, 멸망하지
아니하고”(교리와 성약 4:4; 강조제
추가)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니파이전서 3:7) 이
교훈을 아고보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여름날 저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은 제게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제 옆 좌석은 비어 있었는데 나중에
아주 아름다운 숙녀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여성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러듯, 저도 제목을
훑끗 살펴보았습니다. 그 책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일원이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몬이시군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아뇨, 왜 그러시죠?”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 유명한 회원이 쓴 책이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친구가 준 책인데, 이 책에 관해서는 잘 몰랐네요.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긴 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진전시키면서 교회에 대해 더 말하는 게 좋을까? 그때 “항상 준비하되”(베드로전서 3:15)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내 간증을 전할 때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서 우리나라오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지각 있는 질문을 했으며, 저는 그 질문에 답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연락해도 좋을지 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독신 성인 지부에 참석하고 싶을지도 물었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대답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는 그쪽 스테이크 회장님께 편지를 보내 관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새로운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그 스테이크 회장님의 전화로 전해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제게 일할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사랑

마지막 약속입니다.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구주께서 하신 대답이 기억나십니까?

구주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6~39)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¹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 종들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의 법을 따르고 도덕성과 관련된 규율을 실천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 봉사하느냐에 따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가지 약속: 저는 듣고, 배우며, 일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되며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일하며, 사랑할 때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

1973년 1월 16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William Shakespeare, *The Two Gentlemen of Verona*, ed. William George Clarke and William Aldis Wright, *The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1952), act 1, scene 2, line 31.



“거룩하지 않은 수많은 것으로 둘러싸인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요?”

시련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곳에 서[도록]”(교리와 성약 45:32; 또한 교리와 성약 87:8 참조)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신을 동반해야 합니다. 영은 우리가 유혹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삶에 영을 초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특히 학교나 기타 장소에서 거룩하지 않은 영향력이 주변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경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공부하면 자신을 빛과 진리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빛과 진리는 저 악한 자를 버리느니라”(교리와 성약 93:37)
- 매주 성찬을 취하십시오. 복음대로 살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이 표준은 여러분이 거룩함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부모님과 돈독하게 지내는 청소년들은 어려운 시기에 더 강한 면을 보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화해 줄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렇듯, 피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거룩하지 않은 상황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늘 경건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저는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경건한 태도를 지니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잘 기억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학교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제다 장로(21세), 콜롬비아 보고타 북 선교부

선을 택하고 악을 피하십시오

저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대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또한 교실에서나 점심 시간에 누구 곁에 앉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죠. 그 친구들이 제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우리는 가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거나 듣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얼른 고개를 돌리거나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 머릿속으로 찬송가를 불러요. 또, 경전을 읽고 저를 고양시켜 주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항상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일라이자 에이(14세), 미국 유타

신앙을 지키십시오



주변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세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권고를 따르는 친구들을 곁에 두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표준을 알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는 부적절한 대화를 멈추고 좋지 않은 음악을 끄도록 부탁하세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토마스 에스(15세), 미국 조지아

강하고 용감해지십시오



우리는 강하고 용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지도 모르나

그렇게 할 때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를 하자고 할 때 용감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나스타샤 엔(20세),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랑키브스크

영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성신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항상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신의 동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켄켄(18세), 필리핀 잠보앙가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 저는 우리 학년에서 몇 안 되는 교회 회원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교회의 모든 표준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기에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제 표준을 조금 낮춰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커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에 죄책감을 느꼈고, 저는 회개하기 위해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으나, 그것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학교에서 복음대로 살 때 오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인기는 잃었지만, 그 대신 존경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서튼 케이(15세), 미국 텍사스

성전을 생각하세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행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잘 보이는 곳에 성전 사진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학교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엔젤 티(18세), 에콰도르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관련된 더 많은 제언을 보려면, conference.lds.org에서 201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 중 델린 에이치 옥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로버트 디 헤일즈,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를 참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장소를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으며 그 의지를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여 악마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제가 그 행위를 할 의지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합당하게 생활하여 주님 편 선 안에 머문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르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다른 누군가가 한 일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 198쪽.**

다음 질문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세요. 엄마와 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9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3쪽의 주소 참조)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세미나리를 통해 얻은 간증

칼라 브리건트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비회원이셨기에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가 항상 의문스러웠다. 교회가 정말 참되다면, 왜 아버지는 교회에 가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나는 초등학교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또 어머니가 경전을 읽어 주시는 것도 좋아했기에, 점차 나만의 간증이 싹트기 시작했다.

청녀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세운 목표 중 하나는 매달 금식 주에 간증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간증을 나누는 일은 일종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고, 그것을 통해 세미나리에 등록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굳건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

세미나리 첫 해에는 구약전서를 공부했다. 그 해 동안 나는 구약에 대해 감사하며 구약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성전과 계보 사업의 중요성을 배웠다.

나는 와드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했다. 우리는 수많은 이름을 초출했고, 비록 그 이름과 한정된 몇몇 정보만 알게 되었을지라도, 그

이름의 주인공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도,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금식했다.

다음 해 세미나리에서는 신약전서를 공부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젯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구주에 관해 읽었다. 그분이 흘리신 핏방울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눈물이 흘렀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는지 모른다. 작년에 이사야의 말씀을 공부했던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이사야 53:5)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에 관해 읽고 있을 때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다. 나는 엄마에게 내 느낌과 간증, 그리고 내가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을 아버지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렸다.

다음 해에 교리와 성약을 배우면서 내 간증의 성장은 계속되었다. 나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간증을 얻었다. 또한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교회가 참된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기로

결심했다.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지만, 나는 어느 날 오후에 홀로 진지하게 기도해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간증이 이미 경전을 공부하고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커져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이 그 해에 내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셔서 전과는 다르게 교리와 성약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영혼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 배웠으며(교리와 성약 18:10~16 참조) 아버지를 비롯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다.

세미나리 마지막 해에는 몰몬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나는 내 간증이 또 다시 성장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진심을 다해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몰몬경 읽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몰몬경을 학교에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도 읽었다. 또한 내가 읽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토론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함께 복음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눈 후 아버지께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시도록 권했다. 나는 나처럼 아버지도 간증을 얻을 수 있다고 간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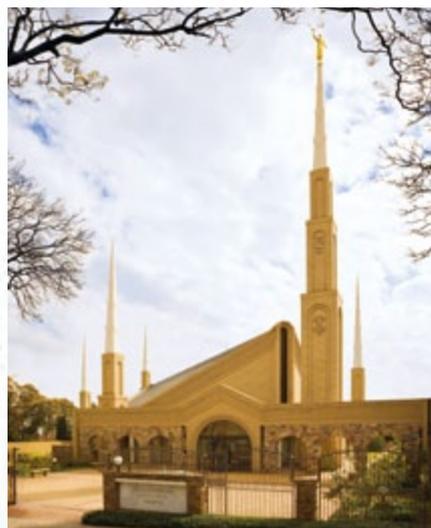
아버지가 지금도 몰몬경을 읽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다. 아버지는 몰몬경을 읽으시며 교회가 참됨을 알게 되셨고, 마침내 침례를 받으셨다! 우리 가족은 현재 성전에서 인봉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나는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경전을 읽는 일이 내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가족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 ■

글쓴이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산다.

왜 성전 결혼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성전 결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최 근, 결혼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 또 사회에서 결혼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같은 문제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전 결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해님반 때든, 청소년 때든 여러분이 언제 개종했던 간에, 복음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배울 때부터 성전



결혼에 대해 들어왔기에 여러분은 그것의 중요성을 압니다.

하지만 “왜?”라는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문은 성전 결혼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왜 그토록 성전 결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지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결혼에 관한 생각과 관습이 사회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가족에 관한 교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가족에 관한 교리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정의를 내릴 때 도움이 되는 **교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전 안내서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가르침”으로 정의합니다.¹ 따라서 우리가

가족에 관한 교리, 혹은 영원한 결혼이란 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²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유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며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다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 선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줍니다.³

죽음 이후에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국법에 따라 한 결혼이 죽음 이후에도 효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법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며 그 효력은 그 권한 아래에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결혼 관계가 이어지려면, 올바른 곳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권세로 부부가 인봉되어야 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성전이며, 그 권세는 바로 신권입니다.(교리와 성약 132:7, 15~19 참조) 성전 결혼을 선택하고 성약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선택하게 됩니다.



대화에 참여하세요



8 월 동안 여러분은 신권 정원회와 청녀반,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결혼과 가족에 관해 공부하게 됩니다. 가족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성전 결혼을 통해 가족이 함께 인봉되며 부활 후에도 한 가족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후, 성전에서 배우자와 인봉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지를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이것이 현재 여러분의 선택과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 보고 집에서 가족에게,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

아마 여러분은 교리를 이미 알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은 교리를 이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가족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와 관련된 단순한 질문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하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복음대로 살고 성전 결혼을 한 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회장단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어떠한 유형의 관계도 그만큼 큰 기쁨 또는 좋은 것을 가져다 주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⁴

우리는 또한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⁵는 것을 압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올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면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침례받고, 초등학교에서 청남, 청녀로 진급하고 성전에 가고, 가족 역사 조사와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청년들은 신권을 받고 신권 직분에서 승진하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반에서 진급하면서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8, 19세가 되면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기대할 것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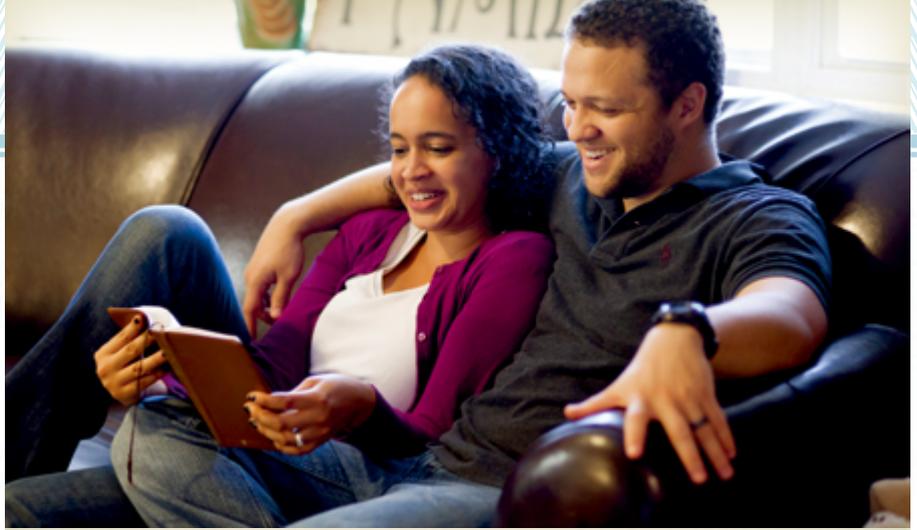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약은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의 계획대로 살고 성전 성약을 지키면,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복음의 길을 따라가면,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 길은 이생에서든, 아니면 다음 생애에서든 성전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자녀들은 어떤 축복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후기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세로 결혼하는 것입니다.”⁶ ■

주

1. 경전 안내서, “그리스도의 교리”, scriptures.lds.org.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가족”,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4. 엘 휘트니 클레이튼, “결혼: 보고 배우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3쪽.
5. “가족”,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6. Bruce R. McConkie, “Agency or Inspiration?” *New Era*, Jan. 1975, 38; 또한 Thomas S. Monson, “Whom Shall I Marry?” *New Era*, Oct. 2004, 6 참조.



결혼에서 얻는 기쁨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신감과 지지. 결혼하면, 응원해 주고 옳은 것을 하도록 격려해 주며 매일 여러분을 고양시켜 주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다.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돌보고 키우도록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

함께 나눔. 누군가와 이생을 함께 보내고 나중에는 자녀들과 함께 생을 보내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배우자의 성공은 가족의 성공이 된다. 함께 추억을 쌓아 나가는 것은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한다.

조언. 배우자는 정직하고 훌륭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으며 그 조언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힘. 둘은 하나보다 낫다. 더욱더 철저히 복음대로 살기 위해 서로 강화하고 도울 수 있다.

웃음. 누군가를 정말 잘 알고 서로 진정으로 신뢰할 때 웃음과 유머로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사랑.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각을 되찾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봉사.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는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우정.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과 함께할 누군가가 생기게 될 것이다.

신뢰.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고 두려움 없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 결혼이란 하나가 되고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두 사람을 주님께서 영원한 관계로 묶어 주시는 독특한 관계를 말한다.



험담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브렛 슈첼틀레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학교 연례 음악회를 준비하는 기술진에 자원했다. 재미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 경험의 시간은 1년 중 최고의 시간이 되었다.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뜻하지 않은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기술진은 서로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 무선 헤드셋을 이용했다. 헤드셋을 통해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긴 리허설 동안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헤드셋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사실 불편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신 나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무대에서 총연습을 하는 배우들에 관해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비열하고 무례한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험담은 더 잔인하고 불쾌해졌다.

그 이야기들에 진절머리가 났지만,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맞설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고 싶었다. 친구들의 농담을 참고 있다 보니 마침내 나도 비웃고 한 마디 거들어야겠다는 유혹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에 동참해도 괜찮을 이유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기술진 말고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은 없을 테고, 게다가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속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웠지만, 나는 무대 공연자를 험담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험담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총연습이 끝난 후, 우리는 헤드셋으로 말했던 내용이 무대 뒤쪽으로 다 들렸음을 알게 되었다. 60명이 넘는 출연진 모두가 우리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일부는 화를 내고 분노하거나 창피해했다. 이 일을 의미 있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 친구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고, 내가 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험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면 나에게 어떤 말이 오갔을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갔겠는가?

비록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어두컴컴하고 조그만 극장에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험담에 동참했다라면 잃어버렸을 우정과 평화, 자신감이란 축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미국 워싱턴에 산다.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말한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 내면의 감정과 우리의 참모습을 나타냅니다.



감 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접견을 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찾아온 한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접견을 하면서 그 청년은 욕설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욕설을 계속 듣다 보니 자신도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멈추려고 노력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욕설을 멈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권고와 비슷한 이런 제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입에 담거나 조롱, 헐담, 분노를 담은 말을 하는 등 표준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 습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족과 친구에게 여러분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¹ 저는 당시 이 권고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실렸더라면, 하고 바랐습니다.

청소년 시절 나의 경험

저는 이 청년에게 부적절한 말이 종종 쓰이는 환경에서 자란 제 청소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종류든 신성모독의 말을 들을 때면, 제가 하려 했던 좋은 생각보다 더 쉽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훌륭한 신권



래리 엠 기슨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지도자는 제게 생각이란 기적적인 저장 장치이므로, 부적절한 생각이 들면 칭찬할 만한 것으로 곧바로 덮어 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늘 함께 하소서”(찬송가, 97장)와 “거룩함도 더욱”(찬송가, 60장)과 신앙개조 제13조를 외웠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적절한 말을 하면 즉시 두 찬송가 중 하나를 부르거나 신앙개조 제13조를 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곧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고 싶지 않은 장소들이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개조 제13조를 인용했고, 특히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할 때마다 부적절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뀌서 이런 간단한 표어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말한다!” 둘 중 한 명이 이 말을 하면 ‘내 말이 정직, 진실, 순결, 인자하며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가?’(신앙개조 제13조 참조)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신성을 모독하고 노골적이며 저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듣거나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신성모독적이고 노골적이며 저속한 것들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느꼈기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에베소서 4:29)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부 청소년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또래와 어울리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그런 습관에 몰드는 주요 원인이 그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² 청소년에게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늘상 욕설을 하는 비회원 친구를 둔 어느 한 청남처럼 말입니다. 그 청남은 친구가 욕설을 할 때마다 상냥하게 그만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욕설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청남과 그의 생활 방식에

큰 감명을 받아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친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은 우리가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 내면의 감정과 우리의 참모습을 나타낸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잘 나와 있듯이 “깨끗하고 지적인 언어는 총명하고 건전한 정신을 증거합니다. 다른 이를 복돋아 주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훌륭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십시오.”³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하면서 약속하듯이, 우리는 모두 항상 영을 동반하리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며,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신성모독이나 험담하는 데 쓰는 대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보여 주는 방편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1쪽.
2. 엘 톰 페리, “의롭고 균형 잡힌 삶의 전통”, 리야호나, 2011년 8월호, 33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쪽.



일, 봉사, 영적인 자립

근면과 봉사의 축복은 현세적인 도움 그 이상입니다.



페르 지 맘 장로
칠십인 정원회

벽돌을 쌓던 16세 시절

근면을 배우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고된 육체 노동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집회소 건축을 돕기 위해 특별 교회 봉사 선교부에 부름 받아 이같은 교훈을 일찍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16세로, 막 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벽돌공으로 일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룹으로 나뉘어 제가 살던 스웨덴에서 여러 인근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는 지역 와드의 회원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집을 가까이 내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여했던, 교회 회원들의 선하고 확고한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들은 봉사하고 싶어했습니다.

교회 봉사 선교부로 부름 받았던 대부분의 청남들은 나이가 더 많았는데 저만 유독 16세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19세가 되어서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형과 제가 부름 받았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업을 잠시 접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나는 일찍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운 아들을 두고 싶구나. 그런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이 될 거야.” 오늘날 청남들에게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할 특권이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약간 긴장은 했지만,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일을 위해 어떤 위치에서든 봉사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감을 느끼기보다는 신이 났습니다. 교회를 위해 집회소 건축을 돕는 일은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간증을 얻고 자립하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간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청남 시절,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저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제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영의 속삭임을 진정으로 듣고 따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한 감정과 능력은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 봉사했을 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간증과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소망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수줍음이 많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부름과 지명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배우고 봉사하며 성장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교리와 성약 58:27 참조) 제가 살면서 배운 것은, 뭐든지 처음보다 훨씬 발전하게 마련이며, 시작점을 계기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그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입니다. 우리 각자는 성약을 맺고 성약을 충실히 지키며 우리의 환경, 재능,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영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관점의 일부이며,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시련에 맞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봉사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주님에 대한 확신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해지게]”하라고 촉구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그분의 영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며, 비록 이 삶 자체가 시험이 될지라도, 혼자가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봉사할 때 여러분은 능력 이상의 도움과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삽화: 크레이그 스테플러

우리는 누가 가장 부유하고 재능이 많고,
아름다운지, 혹은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지를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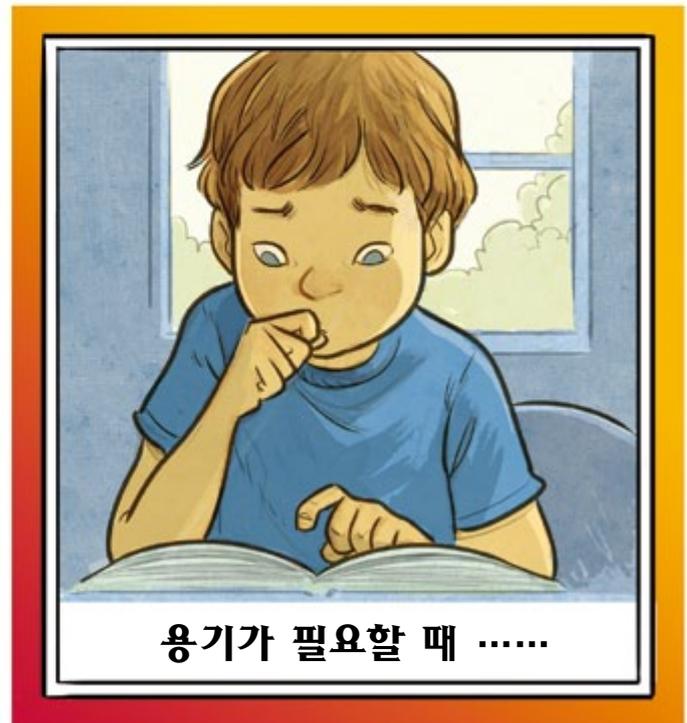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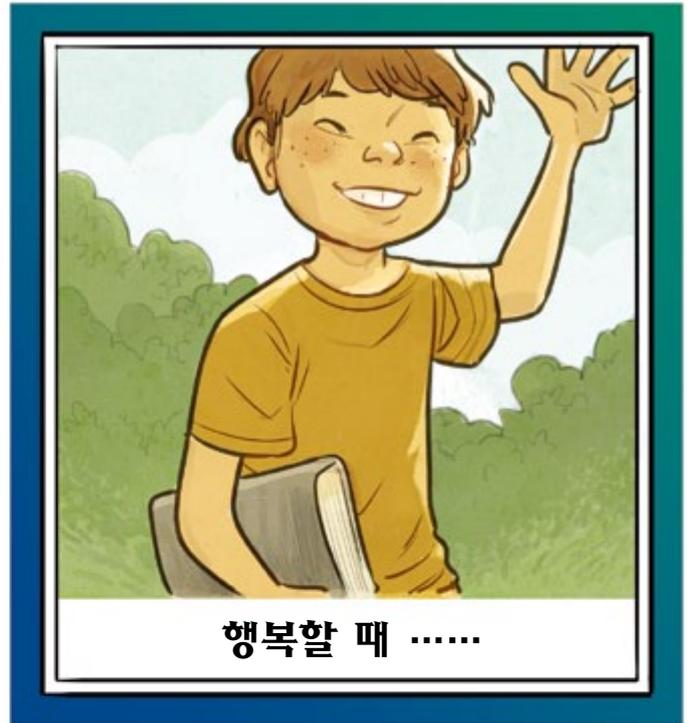
탐내거나, 경멸하거나, 다른 이의 불행을
바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을
높여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쟁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경전 카드

경전은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카드를 잘라서 경전 안에 끼워 두세요. 카드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어요
.....

- 시편 118:24
- 요한복음 13:17
- 엘마서 26:35

- _____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어요
.....

- 여호수아 1:9
- 열왕기하 6:14~17
- 교리와 성약 50:41~43

- _____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어요
.....

- 다니엘 6장
- 니파이전서 3:7
- 엘마서 56:44~48

- _____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어요
.....

- 이사야 41:10
- 제3니파이 17:18~25
- 교리와 성약 84:88

- _____

알파카가 도망갔어요!

마지막 남은 알파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롬니 피, 12세, 미국 캘리포니아

“하늘 아버지, 지금 기도드려요. 날마다 저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세요.”(“Heavenly Father, Now I Pray”, Children’s Songbook, 19)

지 난여름에 나는 이웃 아주머니 댁에서 일을 했다. 아주머니는 호두나무 과수원 바로 옆에 커다란 알파카 농장이 있으시다. 알파카는 라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집이 더 작다.

나는 매일 알파카 우리를 청소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즐겁게

일했다.

찌는 듯한 어느 여름날 오후에 농장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안 계셨다. 하지만 문제될 건 없었다. 아주머니가 집에 안 계시더라도 편한 시간에 언제라도 와서 우리를 청소해도 된다고 이미 아주머니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청소하고 있는데, 알파카 한 마리가 문을 차서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열네 마리의 알파카가 모두 마당과 과수원으로 도망쳐 버렸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뱃속이 아려왔다. 나 혼자서 어떻게 저 알파카들을 잡아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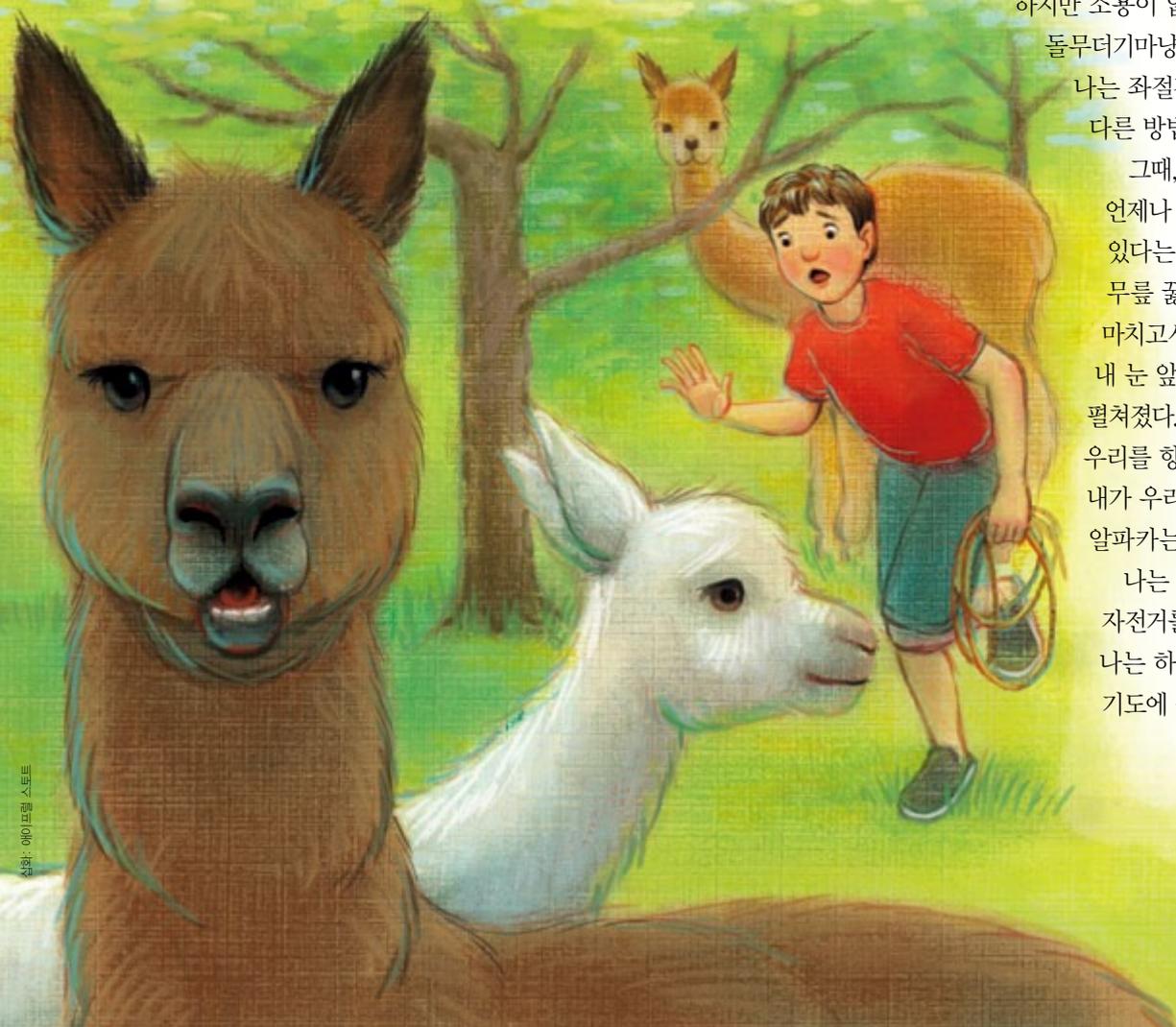
나는 할 수 있는 한 재빠르게 이리저리 몸을 날리며 한두 마리씩 우리로 몰았다. 정신 없이 뛰어다니느라 심장은 터질 듯했지만, 다행히 15분 후에는 마지막 남은 한 마리까지 우리 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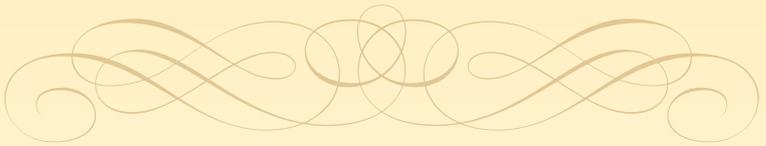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9미터 정도 떨어진 과일나무 옆에 새끼를 뺀 알파카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게 보였다. 어? 아직 한 마리가 남았잖아! 우리로 유인해 보았지만, 그 알파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고에서 찾아낸 고삐와 줄로 알파카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알파카는 거대한 돌무더기마냥 그대로 누워 있었다.

나는 좌절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어디에 있건 내게는 언제나 도움을 청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나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서 눈을 떴을 때, 또다시 내 눈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 알파카는 스스로 우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우리 문을 열어 주자 알파카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았다. ■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곳을
함께 둘러봅시다!

나부 탐험

제니퍼 메디

길 을 걷다 보면 먼지가 살포시 일어납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미시시피 강물도 보이죠.
따카닥 따카닥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끌며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리노이 나부의 팔리 거리에
서 있습니다.

1839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초기 회원들은
나부에 정착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1840년대 중반까지 살다가
서부를 향해 떠나게 되었지요.

성도들은 **그들만의
장식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나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곳”이란 뜻입니다.
나부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벽돌
건물, 푸른 들만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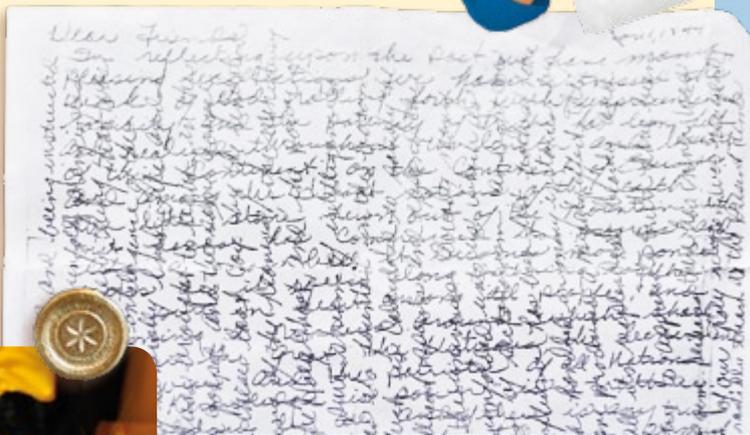


사진 촬영: 제니퍼 메디; 삽화: 로라 핸드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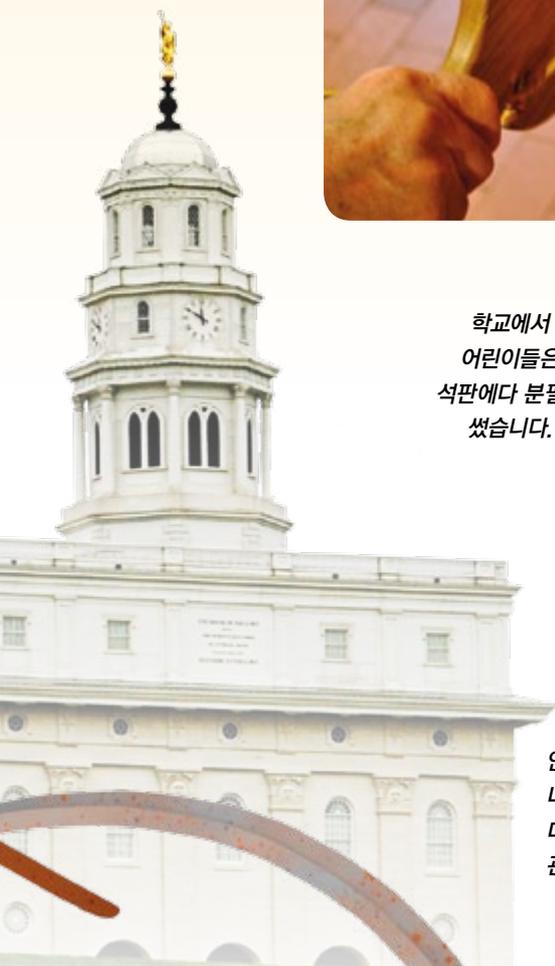


나부에 있던 많은 오래된 건물들이 복원되었습니다. 1840년대 복색을 한 선교사들이 방문자들에게 초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코빌 빵 가게에서 생강 쿠키도 맛볼 수 있고, 신발 가게에서 신발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와 우표가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로스 라이팅(cross writing)”이라는 방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크로스 라이팅이란 한쪽 방향으로 글을 다 쓰고 나면 종이를 90도 돌려서 그 위에 또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써 보고 자신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읽어 보세요!



개척자들이 했던 방법으로 밧줄을 만들려면 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들은 석판에다 분필로 썼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나무 성전은 나무와 강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리아호나에서 성전에 관해 더 읽어 보세요!



촛불은 돌맹이를 굵은 실로 칭칭 감은 후 동물성 지방에 여러 번 담가서 만들었습니다.

이 램프의 빛 때문에 벽과 천장에는 재미있는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어 떤 어려움 때문에 많이 걱정했던 적이 있나요? 엘마와 그의 선교사 동반자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려 했지만, 조렘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렘인은 자신들이 낯설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레미움프툼이라는 높은 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올라가 매번 똑같은 기도만 했습니다.

엘마는 기도로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엘마는 조렘인들이 몹시 교만하고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엘마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과 동반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선교 사업을 해낼 힘을 주시도록 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엘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마와 동반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더 큰 힘을 느끼도록 도와주셨습니다.(엘마서 31장 참조)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해 주십니다. 그분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거나 우리가 기대한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응답을 주십니다. ■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내용이 담긴 경전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가족과 함께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골라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여러분은 그분의 응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현재 겪는 어려움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노래와 성구

-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7쪽
- 교리와 성약 112:10

경전에 나오는 기도

경전에 나오는 다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각 칸에 맞는 상자를 찾아보세요. 그림 옆에 있는 경전 구절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 기도했나요?

왜 기도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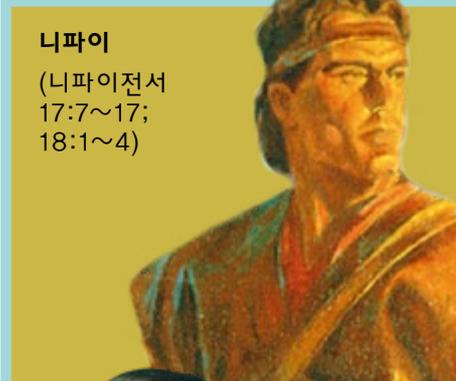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에스더 왕후
(에스더 4~7장)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바뀌어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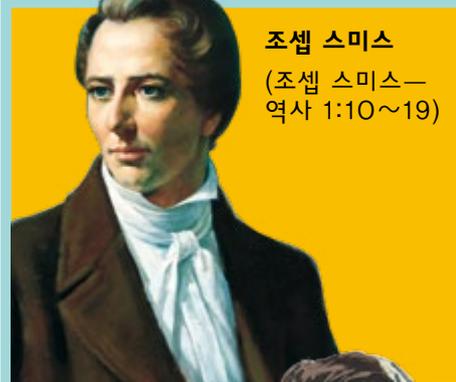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연장을 만들어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
(니파이전서 17:7~17; 18:1~4)

그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아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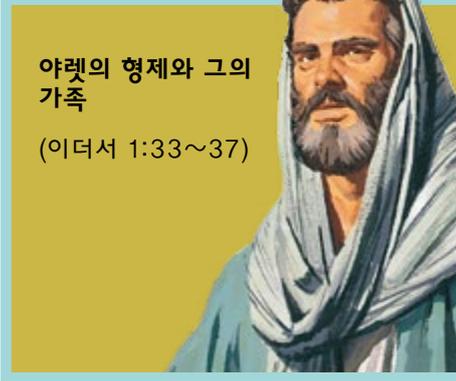
왕은 그녀의 목숨을 살려 주었고, 그녀는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역사 1:10~19)

그녀는 자신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왕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야렛의 형제와 그의 가족
(이더서 1:33~37)

그는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타고 갈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방법도 몰랐고,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앞에 나타나셨고, 어떤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상하: 브래드 타이; 오른쪽 상하: 에스더 왕후, 미넬리 케이 타이(키트) © WILLIAM AND BETTY STOKES; 왼쪽 상하: 조셉 스미스, 미넬리 케이 타이(키트) © WILLIAM AND BETTY STOKES; 오른쪽 상하: 니파이, 조셉 스미스 아서 앨버트 기턴스 © 1989; 왼쪽 상하: 조셉 스미스, 미넬리 케이 타이(키트) © WILLIAM AND BETTY STOKES; 오른쪽 상하: 야렛의 형제와 그의 가족, 조셉 스미스 아서 앨버트 기턴스 © 1989; 왼쪽 상하: 조셉 스미스, 미넬리 케이 타이(키트) © WILLIAM AND BETTY STOKES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완에 사는 월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일 중 어떤 걸 좋아하나요? 월과 월의 형인 알렌은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타이완 섬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애미 제인 레빗과 나눈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경전을 읽습니다. 알렌 형은 모세와 노벱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리하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경고하시는 부분과, 니파이에게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배를 만들라고 하셨던 부분의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사진 제공: 월 가족, 미로 명시한 것 제외, 풍동과 월령 사진: STOCKPHOTO, 알렌의 사진은 푸크, 타이완 타이베이 상인 사진: 클라임 블로이드



한가한 시간에는 뭘 하나요?

월: 컴퓨터 게임, 프리스비, 축구
알렌: 독서, 그림 그리기,
할아버지와 산책하기

좋아하는 색깔은?

월: 주황색
알렌: 무지개색 전부 다

좋아하는 동물은?

월: 공룡
알렌: 동물원에서 본 오랑우탄과 기린



좀 더 살펴봅시다!

- 타이완은 중국 해역 근처에 있는 열대 섬입니다.
- 사람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살며 표준 중국어를 씁니다. 9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은 불교나 도교를 믿습니다.
- 타이완의 수도인 타이페이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타이완에는 재미있는 명절과 축제가 많아요.
9월에는 중추절이 있지요.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월병을 먹어요. 월병 안에는 팔이나
연꽃 씨앗 앙금이 들어 있어요.



타이완에서 종종 선교 사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에게 정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초등학교
노래인 "의를 위해 서라"를
가르쳐 주었어요.

- 학교가 끝나면, 형과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집까지 걸어서 와요.
숙제를 하고 부모님이랑
저녁을 먹지요. 저는
쇠고기 국수를 제일
좋아하고 형은 볶음밥을
좋아해요. 우리 둘 다 달콤한
음식을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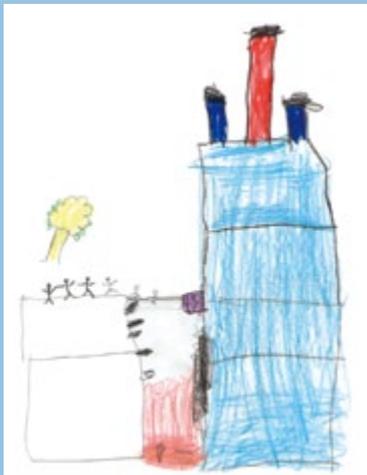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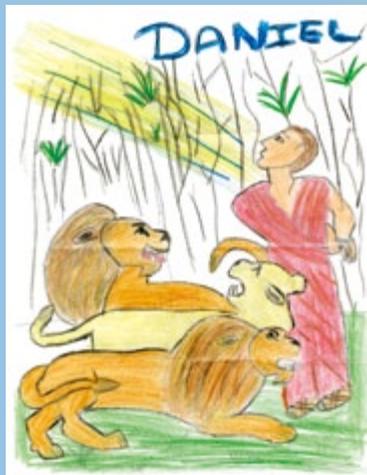
스페인 가스펠은 와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 기도하는 법,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법, 이웃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칠레에 사는 프란시스코 피(4세)는 칠레 산티아고 성전 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식구들을 돕는 것도 좋아합니다.



지오다노 브이(5세), 페루



다니엘, 델리 엠(10세), 멕시코



브라질에 사는 케이큐 엠(5세)은 뇌성마비 때문에 걷지 못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소년입니다. 케이큐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송가도 좋아해서 언제나 성찬식 시간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맨 처음 배웠던 찬송가는 “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케이큐는 사랑이 많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며,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되는 소년입니다.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을 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엘리사 에프(11세), 브라질



침례 받던 날 느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침례탕에 섰을 때, 마음속에 “폴라, 넌 옳은 일을 하고 있단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침례 받아서 아주 기뻐요!

폴라 지(9세), 아르헨티나

우리의 대답

타티아나 아게로
실화에 근거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아서 10:4)

페루에 있는 우리 집 문 앞에 선 두 남성을 처음 보았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흰 셔츠와 넥타이를 한 그 두 사람은 정말 흰칠했다! 그리고 얼굴에는 따스한 웃음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일 거야.’라고 생각했다. 부모님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셨을 것이다. 이내 그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게 되었으니까.

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고,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항상 느꼈다.

“침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 하루는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다.

엄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싶지. 하지만 네 아빠와 함께 받고 싶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 아홉 살이었기에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 역시 아빠와 함께 침례 받고 싶었다. 그러나 아빠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셨다.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하신 듯 엄마는 “계속 기도하면 그때가 올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선교사들이 아빠에게 복음이 참된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물문경 마지막 부분의 권유대로 해 보도록 권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나는 아빠가 그 권유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다. 나는 선교사들이 부탁한 방식대로 함께 기도해 봐도 좋은지를 여쭙었다. 우리는 내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아빠는 누가 기도하면 좋겠는지 물으셨다.

나는 “아빠가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침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빠가 기도드리자, 사랑과 평화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아주 강한 느낌이었기에 아빠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다. 우리는 침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를 마친 아빠의 눈빛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빠는 “우리가 응답을 받았구나.”라고 속삭이며 나를 안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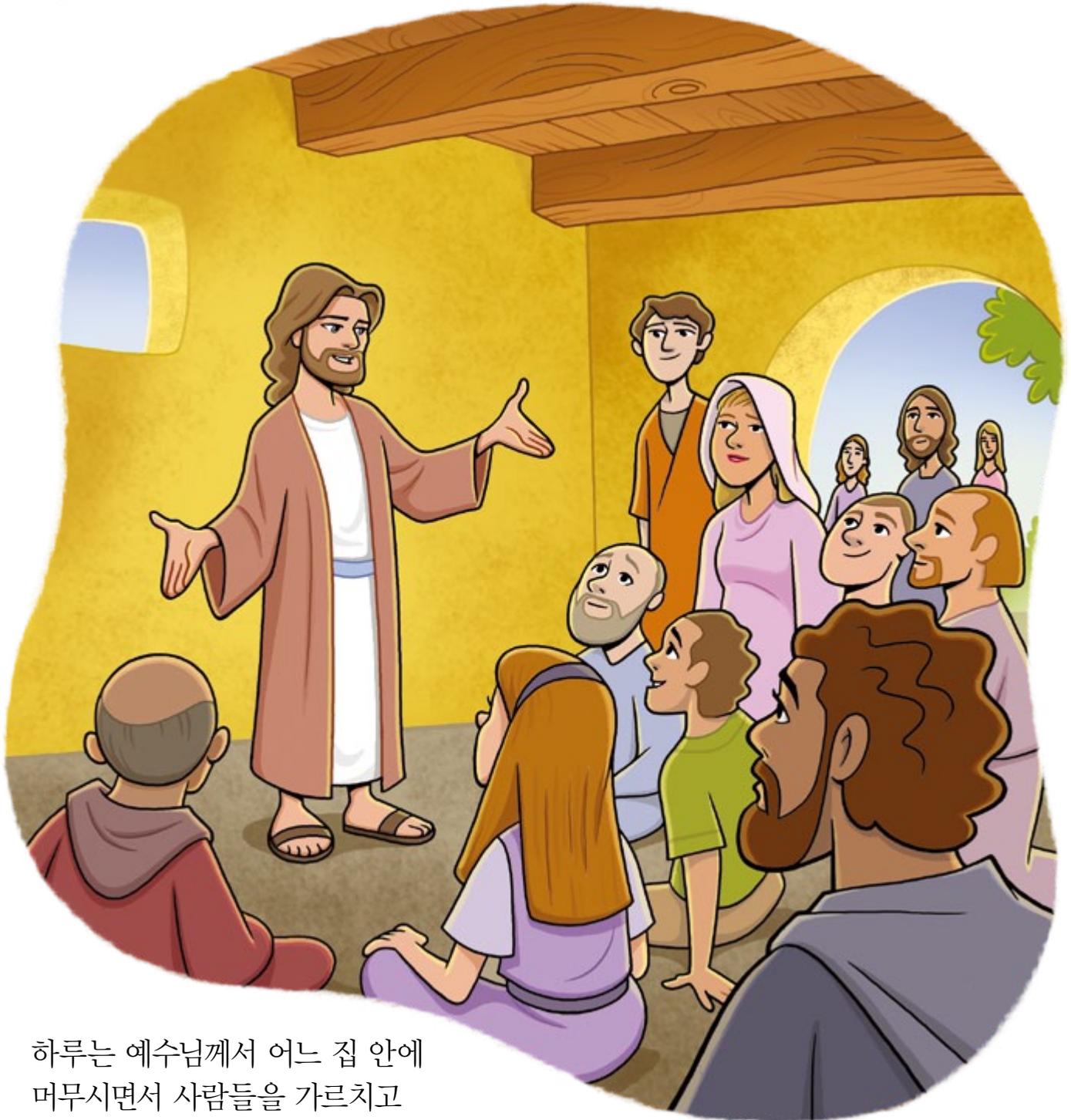
나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묻고선 빙그레 웃었다. 성신은 우리가 무엇이 참된지를 알게 해주셨다.(모로나아서 10:5 참조) ■

단순한 기도로 우리
가족에게 영원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픈 남자를 낮게 해주신 예수님

마고 메이
누가복음 5:17~25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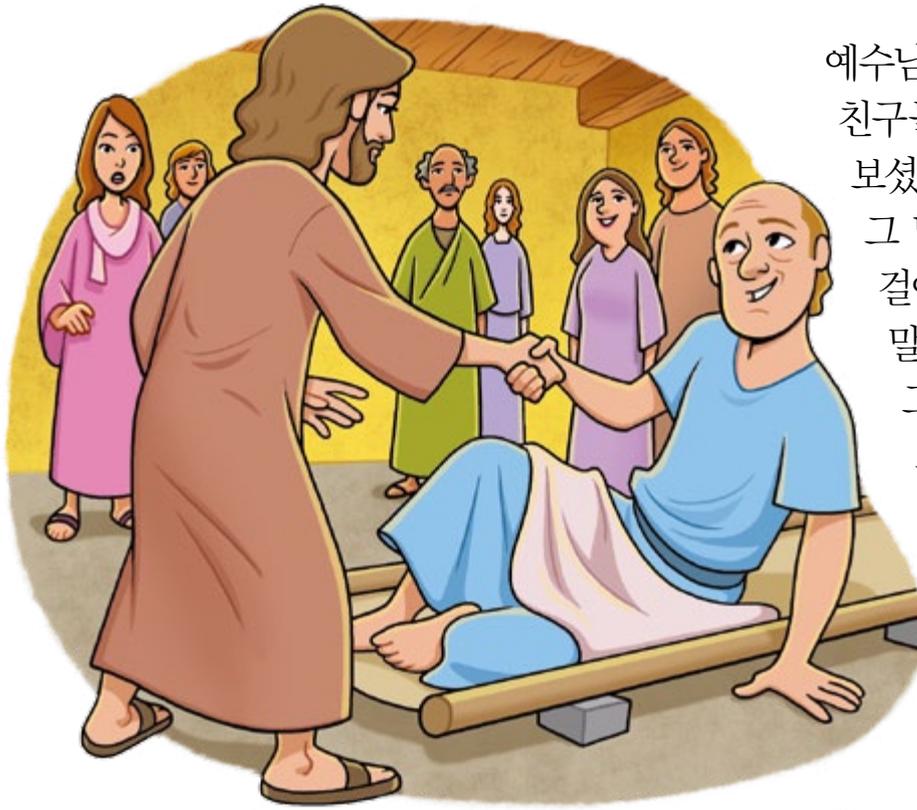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안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집 밖에는 걷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집으로 그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이 몹시 혼잡해서 그 남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집 지붕으로 그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친구들은 침상에 누워 있는 그 남자를 침상째로 내려서 예수님이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와 그 친구들의 큰 신앙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남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위대한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많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

미지의
바다를
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종이라는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01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발췌

어미 오리와 나를 위한 자비를

로지 카프만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어린 다섯 자녀 중 몇 명을 무용 학원과 미식축구 연습장에 데려다 주고 또 이미 거기에 가 있는 몇 명은 데리고 오려고 차에 준비물을 싣고 있었다. 미식축구 장비와 무용 준비물이 든 가방을 싣는데, 교외 지역에 있는 우리 집 근처 보도에 뒤통거리며 걸어가는 어미 오리들과 새끼 오리들이 보였다.

내가 눈을 돌렸을 때, 어미 오리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어미는 격자 철판이 깔린 배수구 위를 건너기로 한 모양이었다. 어미가 그곳을 건너자 새끼들도 뒤를 따랐다. 하지만 네 마리 새끼가 격자 철판 사이로 속절없이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다.

맛은 편에 당도한 어미는 새끼 몇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고 희미하게 짹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미 오리는 배수구를 다시 건너서 잃어버린 새끼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러다 두 마리를 더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미의 한심한 판단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화가 난 나는 하수구의 격자 철판을 들어올릴 수 있는지 보러 갔다. 있는 힘껏 그 철판을 들어 올렸지만 철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에 늦고 있었다.

나중에 좀 덜 급할 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얼른 차에 탔다. 나는 “저 어미는 엄마 자격이 없어.”라고 독선적인 말로 중얼거렸다.

그 후 1시간 반 정도를 보내면서 나는 부모로서



어미 오리처럼 나는 종종 부족한 데가 많다. 구주께서는 그때마다 내게 도움을 주셨다.

여러 번 했던 실수를 또다시 저질렀다. 내가 아이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번 용서를 빌었던 실수였다. 매번 더 잘하겠노라고, 다시는 이런 부족함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다른 아이들을 놀리는 자녀 하나를 호되게 꾸짖을 때, 내 귀에 “저 어미는 엄마 자격이 없어.”라는 말이 크게 들려왔다.

갑자기 어미 오리를 향한 연민이 북받쳐 올랐다. 어미 오리는 나처럼 자신의 본능대로 세상을 헤쳐 나가려 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본능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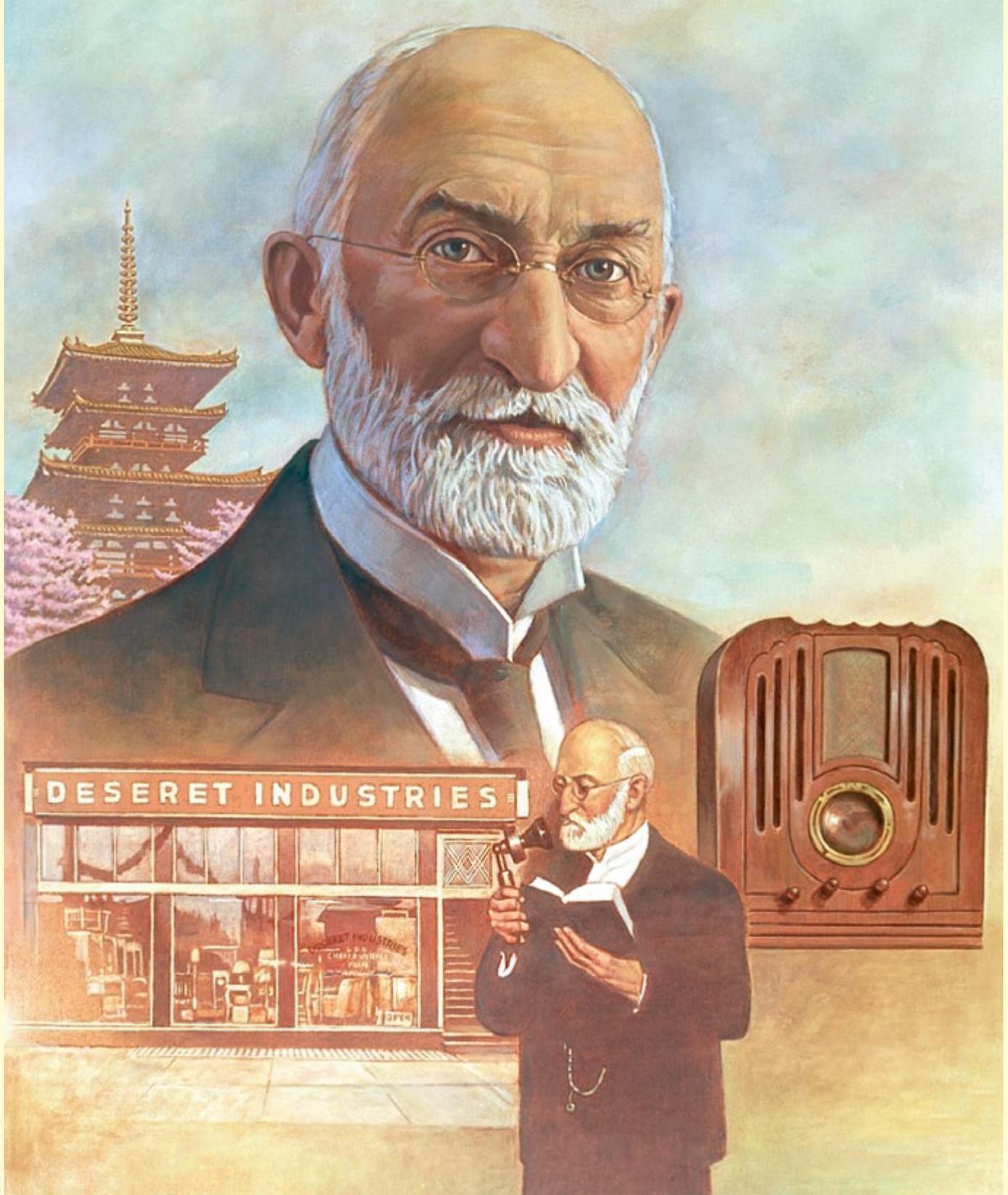
나는 격자 철판을 들어올려 새끼 오리들을 구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집으로 가는 모퉁이를 돌았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다. 이웃 사람이 격자 철판을 들어올려 배수로 터널로 들어가서 새끼 오리들을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구해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새끼 오리들은 어미를 찾아 갈팡질팡했고 어미는 근처 수풀 속에서 쏙살같이 달려왔다. 어미가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미 오리의 보호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을 때 이웃 사람이 개입해 준 것이었다. 구주께서 내 자녀와 나를 위해 똑같이 해 주신 것이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장 훌륭한 의도로, 가장 열심히 노력해도 때때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할 때가 있다. 하지만 구주의 “은혜[는] [그분]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다.”(이디서 12:27) 내 부족함이 자녀들을 망치지 않는 것이며, 자녀들이 구주로부터 사랑과 화평, 이해, 자비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 위안이 되었다. 그분은 나를 “어루만지시며”¹ 내 가족과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스스로 겸손해지고 주님 곁에 나란히 선다면, 우리의 단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삽화: 로버트 티 버넷

허버 제이 그랜트

허버 제이 그랜트는 일본에 세워진 첫 번째 선교부를 조직하고 감리했습니다. 그가 교회 회장이었을 때 교회는 라디오를 통해 말씀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회원들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랜트 회장은 **데저렛 인더스트리**를 포함한,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여전히 물품을 모으고 팔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일을 합니다.



십 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비될 때 자신의 편이에 맞추어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주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시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계시가 주어지는 방식에 관해 더 읽어 보려면 “주님이 정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24쪽을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